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31호【루계 제24544호】주체103(2014)년 5월 11일(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제강국, 문명국건설도 사회주의위력, 집단주의위력으로 본때있게 하자

서해벌방 농촌들에서 모내기전투 시작

서해벌방의 농촌들에서 모내기가 시작되였다.

올해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할 드높은 열의안고 당면한 봄철영농공정들을 일정계획대로 내밀어온 황해남북도, 평안남북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모내기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황해남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올해농사를 잘 지을 드높은 열정안고 모내기시작부터 기세를 올리고있다.

모내기일정계획을 빈틈없이 세운 도일군들의 전투적인 작전과 지휘, 농촌당조직들의 힘있는 정치사업에 의하여 드넓은 협동벌이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안악, 연안, 배천, 강령, 옹진, 벽성, 신원, 봉천군들의 농장들에서 모내기를 시작하였다. 뒤따라 모내기를 시작한 다른 군들에서도 일정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농업근로자들은 농사는 t수를 따지는 경제실무적문제가 아니라 더는 물러설수 없는 정치적문제라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떨쳐나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써레치기를 앞세우고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철저히 보장하고있다.

평안남도 농촌들도 모내기전투로 들끓고있다.

도일군들은 영양모, 속성모를 비롯한 실리있는 모기르기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는것과 함께 올해모내기에서 기계화비중을 높이도록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였다. 문덕, 평원군의 농업근로자들은 모종류별, 품종별일정계획에 따라 모내기를 다그쳐 끝내기 위해 첫날부터 실적을 올리고있다. 도적인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된 광천농장을 비롯한 숙천군의 농업근로자들도 올해농사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올 불타는 마음안고 모내기를 시작하여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고있다. 모를 잘 키운 증산군의 농장들에서도 모내기를 일정계획대로 내밀고있다.

평안북도의 농업근로자들이 모내기시작부터 실적을 내고있다.

도에서는 온실모와 이른큰모를 비롯한 여러가지 벼모기르기방법들을 받아들인데 기초하여 적기에 모를 내기 시작하였다. 운전, 박천, 태천, 의주군을 비롯한 다른 군들의 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불리한 봄날씨를 이겨내며 모를 줄대같이 실하게 키운 자랑안고 모내기전투의 앞장에 섰다. 신의주시와 염주군에서는 써레치기를 모내기에 앞세우면서 실적을 올리고있다. 쌀이자 국력이고 농업전선은 미제의 대조선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는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라는것을 심장에 새기고 떨쳐나선 곽산, 동림, 녕변, 삭주군과 구성시 농장들의 농업근로자들도 신심에 넘쳐 모내기를 시작하였다.

사리원시, 송림시와 황주, 린산, 곡산, 신계, 평산, 금천군을 비롯한 황해북도의 농촌들에서는 기계화의 동음 높이 울리면서 모내기시작을 잘 떼였다. 이곳 농업근로자들은 속성모와 영양모를 먼저 내는데 맞게 써레치기를 앞세우면서 모내기를 철저히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나가고있다.

평양시와 남포시의 주변농촌들에서도 일정계획을 바로세우고 모내기를 시작하였다.

서해벌방의 농촌들에서 모내기가 시작된 조건에 맞게 모든 농업부문 일군들은 영농조직과 지휘, 기술지도를 더욱 실속있게 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황연옥

—재령군 롱교협동농장에서— 특파기자 리승철 찍음

노래폭탄

◇ 오늘도 량강도인민들은 모란봉악단의 기백있고 약동하는 공연을 잊지 못하고있다.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몇백마디의 말로도 대신할수 없는 삶과 투쟁의 교과서이며 우리모두를 영웅적위훈에로 부르는 나팔소리이다.》, 《백두의 혁명정신이 나래치는 공연을 보면서 투쟁열, 혁명열로 끓어오르는 격정을 억제할수 없었다.》, 《모란봉악단의 노래포성을 최후승리를 위한 거세찬 투쟁의 불길로 이어나가겠다.》… 이것이 어찌 량강도인민들의 심정뿐이겠는가.

이 땅 그 어디를 가보아도,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모란봉열풍, 모란봉열기로 끓고있다.

단순히 풍만한 성량과 재인 안삼블, 높은 예술적기량때문만이 아니다. 모란봉악단의 노래폭탄이 이토록 사람들의 마음을 무한히 격동시키는것은 바로 온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백두의 넋과 필승의 신념, 생의 활력을 안겨주고 새로운 투쟁과 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시대의 진군가, 최후승리의 장엄한 포성이기때문이다.

◇ 노래폭탄은 핵폭탄보다 더 위력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대를 선도하고 인민대중을 불러일으키는데서 혁명적인 노래가 노는 역할은 매우 크다.》

우리 인민은 지금도 잊지 않고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판가리되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방사포의 일제사격과도 같은 우렁찬 노래포성으로 천만군민을 수령결사옹위전, 사회주의수호전에로 불러일으킨 공훈국가합창단의 혁명군가를.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해갈 총폭탄정신,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 고난도 시련도 웃으며 헤쳐가는 불굴의 신념과 용감성을 활화산처럼 폭발시켜준 공훈국가합창단의 노래는 횡포한 제국주의자들에게는 공포를, 우리 인민에게는 승리의 희열을 안겨주었다. 이 노래가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참기 어려운 식량난도 이겨냈으며 고난의 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이어갈수 있었다. 하기에 이 력사의 기적을 두고 어느 한 외국인은 《대적이 총을 들고 덤벼들면 군가를 맞세우고 포성을 울려야 할 하늘가에 군가를 울려 적들의 침략기도를 꺾어버린 이 놀라운 기적을 두고 나는 이것이야말로 김정일식군가정치의 쾌승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옳은 말이다. 그 어떤 미싸일이나 수천만의 식량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진 노래폭탄이 있기에 우리 조국이 그 어떤 원쑤도 범접 못하는 사상의 강국, 영원한 신념의 산악으로 위용떨치고 있는것이다.

◇ 모란봉악단의 노래포성에 전군, 전민이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온 나라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가야 한다.

모란봉악단의 노래폭탄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석같은 신념의 힘찬 선언이며 천만군민을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에로 부르시는 백두령장의 진격의 나팔소리이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가요를 부르며 일제의 백만대군을 쳐물리친 선렬들처럼 혁명군가를 높이 부르며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나가야 한다. 그 어디에서나 예술선전대활동,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을 활발히 벌려 대중의 심장마다에 간직된 애국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나가야 한다. 누구나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필승의 신심드높이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야 한다.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포성을 힘있게 울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사상공세작전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평안북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모든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아래에 내려가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기 위한 화선식선전선동사업을 적극 벌리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얼마전 홍건도간석지건설장에 나간 도당위원회 책임일군은 25만산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투쟁을 고무해주면서 그들이 불가능을 모르는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3호제방성토공사를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떠밀어주었다.

신의주방직공장과 구성방직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과 락원기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에 나간 도당위원회일군들은 생산현장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을 진행하고 걸린 문제들도 풀어주면서 로동자들의 생산열의를 북돋아주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지난 4월 21일부터 부서일군들과 직외강연강사들, 도예술단배우들과 도예술선전대 대원들을 의주군 홍남벌에 파견하여 포전정치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리도록 함으로써 당면한 영농전투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을 고무추동하게 하고있다. 홍남벌에 달려나간 도당위원회 선전일군들은 이른새벽부터 방송선전차를 통한 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리는 한편 농장원들의 일손도 도와주고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걸린 문제들도 풀어주면서 농장원대중의 애국적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직외강연강사들은 한개 작업반씩 맡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심금을 울리는 강연선전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리고있으며 도예술단과 도예술선전대의 예술인들, 기동예술선동대원들도 온 벌이 들썩하게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경제선동활동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신의주시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직관선전사업을 짜고들고 방송선전차활동을 줄기차게 벌려 국경관문도시에 창조와 혁신의 기상이 차넘치게 하고있다.

이밖에도 정주시, 구성시와 룡천군, 태천군, 운전군을 비롯한 도안의 모든 시, 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사상공세를 벌림으로써 일터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남포시당위원회에서

남포시당위원회에서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시키기 위한 사상전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지난 8일과 9일 시당위원회의 모든 부서일군들이 배낭을 메고 온천군 증악청년농장 포전들에 달려나가 진행한 집중적인 화선식정치사업은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심금을 크게 울려주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인민위원회, 시농촌경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기관 일군들과 근로단체일군들도 온천군의 여러 협동농장 농장원들속에 깊이 들어가 알곡증산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정치사업을 벌리고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당면한 모내기전투를 앞두고 시안의 모든 일군들이 인민군대정치일군들의 모범을 따라 농업근로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도록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농업생산조건이 불리한 온천군 증악청년농장을 집중정치사업단위로 정한 시당위원회 책임일군을 비롯한 일군들은 모내기전투에 절실히 필요한 영농자재들을 싣고 직접 현지에 내려가 이틀간 집중적인 정치사업을 벌리였다.

농장일군들과 함께 포전을 밟으면서 새로운 영농방법의 우월성을 차근차근 알려주기도 하고 농장원세대들에도 찾아가 그들과 한식솔처럼 어울린 일군들의 정치사업은 농장원들의 심장마다에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을 지켜선 전투원이라는 자각을 다시금 깊이 심어주었다.

각 작업반, 분조들에 내려간 시당위원회일군들은 농장원들과 함께 일도 하고 가정도 방문하면서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들을 넘겨주어 농장원들을 감동시키였다.

시당위원회일군들이 모두 떨쳐나 리소재지주변 작업반들은 물론 제일 먼곳에 위치한 작업반의 분조들에까지 내려가 진행한 집중적인 정치사업으로 하여 농장의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올해 알곡생산에서 기어이 통장훈을 부르겠다는 신심에 넘친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울려나왔다.

시인민위원회, 시농촌경리위원회, 시검찰소를 비롯한 시급단위 일군들과 시청년동맹, 시직맹을 비롯한 근로단체일군들도 각기 맡은 협동농장들에 달려나가 준비해가지고간 생활용품들을 안겨주고 뜨거운 정과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농장원들을 당면한 모내기전투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특히 시인민위원회 책임일군은 온천군 석치협동농장에 내려가 농장원세대들도 방문하여 가정일도 의논해주고 알곡증산의 중요성을 깊이있게 해설도 해주며 그들의 자각성과 생산의욕을 부쩍 높여주었다.

시안의 일군들은 지금 들끓는 협동벌들에서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며 농업근로자들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특파기자 주창선

조선속도창조의 불길 세차게 지펴올려

고산과수농장건설에 동원된 618건설돌격대원들

고산과수농장건설에서 618건설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영웅적위훈을 떨쳐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한달동안에 근 4㎞의 도로를 포장하고 수백정보에 6만여대의 콩크리트지지대를 세웠으며 과수농장 근로자들과 힘을 합쳐 200여정보의 면적에 대한 과일나무심기를 끝냈다. 호원과배수로보수공사에서도 혁신을 일으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고산과수농장을 청춘과원으로 꾸려 덕을 보려면 품을 많이 들여야 합니다.》

현장지휘부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일군들은 당이 준 과업을 집행하기 전에는 물러설 권리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방대한 작업량을 섬멸전의 방법으로 해제끼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찾았다. 그리고 일별, 주별, 월별계획을 면밀히 세워 각 려단들에 전투과제를 정확히 주었다. 또한 로력과 설비들을 총집중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면서 작업대상별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여 모든 돌격대원들이 맡겨진 전투과제수행에서 나서는 기술적요구들을 환히 꿰들고 질을 보장하는데 큰 힘을 넣도록 하였다.

모든 정치일군들이 전투현장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사상공세를 힘있게 벌리였다. 그들은 선전선동수단을 전투현장에 집중시켜 돌격대원들의 사기를 부쩍 높여줌으로써 모두가 애국의 한마음을 바쳐가며 과수농장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의 앞장에 서도록 하였다.

도로포장전투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분출시키고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는데 힘을 넣으면서 도로포장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할수 있는 실속있는 대책들을 세워나갔다. 모든 단위들에서 깬돌, 혼석생산과 운반을 앞세우면서 세멘트수송을 따라세우기 위한 수송전투를 힘있게 내밀었다. 또한 모든 려단들에서 혼합기, 진동다짐기를 자체로 만들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만단의 준비를 갖춘 각 도려단들에서는 일제히 도로포장전투에 진입하여 시작부터 실적을 높여나갔다.

자강도려단에서 도로포장공사를 힘있게 다그쳤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규격화된 돌들을 앞질러 운반하여 기술적요구대로 도로면에 깔고 다짐을 잘함으로써 기초공사를 질적으로 와닥닥 해제꼈다. 그리고 기계수단들을 적극 리용하여 밤낮이 따로 없는 힘찬 전투를 벌려 도로포장계획을 매일 1.2배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평안남도려단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군들은 정치사업을 드세게 들이대며 돌격대원들과 한덩어리가 되여 완강한 돌격전을 벌림으로써 돌격대적으로 매일 수백m구간의 도로를 포장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콩크리트지지대세우기전투장에서 드센 공격전이 벌어졌다.

각 도려단들에서는 새로 조성한 과수원에 필요한 량의 콩크리트지지대들을 앞질러 운반하기 위한 수송조직을 짜고들었다. 시공일군들은 갓 심은 과일나무들을 곧추 자래우면서도 과수원의 풍치를 한껏 돋굴수 있게 콩크리트지지대들을 질적으로 세우기 위한 시공지도를 짜고들었다.

함경북도려단의 일군들은 측량을 앞세워 콩크리트지지대들을 세울 위치를 정하고 기복이 심한 조건에서 높이를 잘 맞출수 있게 포전별 구뎅이깊이들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단위별로 맡고나가 포전을 담당한 초급일군들과 모든 돌격대원들에게 작업방법들을 알려주고 시공지도에 품을 넣었다. 결과 돌격대원들은 짧은 기간에 20여정보에 대한 콩크리트지지대세우기를 질적으로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1만여대의 콩크리트지지대세우기를 맡은 평안남도려단에서는 참모장을 비롯한 일군들이 작업조직을 짜고들고 합리적인 방도들을 내놓으면서 전투조직과 지휘를 기동성있게 하였다. 돌격대원들은 매일 수천대의 콩크리트지지대를 손색없이 세웠다. 남포시, 황해남도려단에서는 정치사업을 드세게 벌리고 공법상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열흘동안에 많은 콩크리트지지대를 세우는 혁신을 일으켰다.

각 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고산과수농장 근로자들과 협동작전을 진행하여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그들은 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수만개의 과일나무구뎅이 파기를 와닥닥 해제꼈다. 그리고 정보당 100t이상의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실어내기 위한 운반전투를 통이 크게 벌려 짧은 기간에 맡겨진 전투과제를 수행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현장지휘부에서는 구뎅이마다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듬뿍 채우기 위한 려단별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계속 힘찬 돌격전을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결과 돌격대원들은 계획보다 훨씬 앞당겨 과일나무를 심을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수백정보의 과일나무심기를 단숨에 끝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모든 단위들에서 수십정보의 호원, 수십㎞의 용배수로보수공사도 힘있게 다그쳐 성과를 확대하였다.

본사기자 정영철

장철구평양상업대학에 봉사학교가 새로 나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기술자, 전문가양성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기술교육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완성해나가야 합니다.》

장철구평양상업대학에 봉사학교가 새로 나왔다.

여러개의 학과를 가진 봉사학교는 호텔봉사부문의 전문가들을 양성할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사회주의문명국으로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장철구평양상업대학에서는 지난 몇달동안 봉사학교를 내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대학의 일군들은 교육강령작성사업과 교육력량을 꾸리기 위한 사업 등에 큰 힘을 넣었다.

우선 해당 학부의 력량을 동원하여 과정안작성을 적극 다그쳤으며 이를 위한 교재, 참고서보장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그리고 유능한 교원들로 봉사학교의 교육력량을 튼튼히 꾸려주고 이 학교에서 공부하게 될 학생선발사업을 빈틈없이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대학에서는 짧은 기간에 봉사학교를 운영할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놓았으며 지난 4월말에 개교식을 가지고 첫 강의를 시작하였다.

봉사학교가 새로 나온것은 나라의 봉사업을 세계적수준에로 끌어올리며 호텔봉사부문의 전문가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학교의 교원들은 지금 호텔봉사부문의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을 키워내기 위한 교수사업에 정열을 바쳐가고있다.

이와 함께 대학의 일군들과 교육자들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료리실습실에 필요한 료리실습참고서집필과 다매체편집물제작을 짧은 기간에 다그쳐 끝내고 료리가공과정을 알기 쉽게 보여주는 직관판을 훌륭히 완성하여 11종에 80여점에 달하는 료리소도구들과 함께 야영소에 보내주었다. 그리하여 지난 4월 준공을 앞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료리실습도구들까지 보내주시였다는 감동적인 소식에 접한 대학의 교육자들은 또다시 긴장한 전투를 벌려 야영생들이 크나큰 사랑과 은정이 깃든 료리실습도구들을 사용하면서 실습을 할수 있게 다매체편집물을 훌륭히 완성하여 야영소에 보내주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 아낌없는 사랑을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대학의 일군들과 교육자들은 지금 봉사학교의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갖추고 교육사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 호텔봉사부문의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낼 확고한 신심과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공로혁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할 애국의 한마음안고 전력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림학락 찍음

정 론

청 천 강 은 노 도 친 다

1

강물은 흘러 바다로 간다.

바위가 막아서도, 천길만길의 낭떠러지가 있다 해도 바다로 향하는 강물의 흐름은 멈춰세울수 없다.

그처럼 막을수 없고 멈출수 없는 우리 시대의 벅찬 흐름이 있다.

제땅에서 제손으로 더 좋은 래일을 창조하며 희망찬 미래에로 기세차게 나아가는 우리 천만군민의 힘찬 발걸음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건설전투장들에서 창조되는 새로운 건설속도와 시대정신은 천만군민을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영웅적투쟁과 위훈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합니다.》

우리는 지금 출렁이는 청천강의 물결을 따라 수백리의 구간에 전개되여있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을 걷는다.

수백리의 구간에 10개의 발전소가 일떠선다!

생각만 해보아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규모도 방대하고 목표도 아름차지만 더 놀라운것은 기적이 현실로 되고있는 청천강반의 전변의 새 모습이다.

봄빛이 짙어가는 청천강에 경쟁이라도 하듯 10개의 언제가 우뚝우뚝 솟아오른다. 집채같은 발전기실들이 제모습들을 확연히 드러내며 일떠서고 산발들에는 송전탑들이 즐비하게 늘어섰다. 물고기길과 방수로공사도 마감단계이다. 이 속도로 내달리면 올해말에는 청천강을 따라 일떠선 10개의 언제와 발전기실들을 보게 될것이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조선의 본때를 보여주게 될 새로운 시대정신이 우리의 청천강반에서 태동하고있다.

위대한 목표는 위대한 노력을 요구한다.

눈부신 리상은 높은 속도와 백배로 응축된 힘으로써만 실현할수 있다.

고난의 행군길에서도 잃지 않았고 더더욱 높아진 우리의 리상, 최후승리를 향한 오늘의 총진군길우에 더 힘차게 나붓기는 우리 희망의 표대를 꺾어보려고 원쑤들은 악랄하게 책동한다. 번영에로 내닫는 우리의 힘찬 발걸음을 막아보려고 없는 사실도 꾸며내고 사사건건 트집을 걸면서 우리에게 올가미를 씌워 목조르기를 하려고 접어들고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꿈과 리상을 기어이 성취하리!

이것이 청천강을 진감하는 기적과 위훈들에 살아높뛰는 발전소건설자들의 정신이고 의지이다.

원쑤들은 경제분야에는 제재를 할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인민의 이 드팀없는 자주의 정신, 자력갱생의 기상과 의지에는 제재를 할수 없다.

보라, 원쑤들이 아무리 발버둥질을 쳐도 내 조국의 성스러운 강에 자력갱생의 기념비들이 우줄우줄 키를 솟군다.

그것은 최후의 승리를 향해가는 우리 조국의 힘찬 발걸음이다. 자기 힘으로 자기의 행복과 번영을 기어이 안아오려는 자주정신의 강력한 분출이다.

그 시작부터가 류달랐던 발전소건설이였다.

력사는 똑똑히 기억하고있다. 2013년 1월 30일, 하늘도 땅도 얼어붙었던 한겨울의 추위속에 우렁차게 울리였던 그날의 착공포성은 무엇으로 하여 그처럼 충격적이였던가.

우리의 위성발사를 구실로 미국이 유엔까지 동원하여 우리에 대한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결의》라는것을 조작해낸 때로부터 불과 며칠이 지난 그때였다.

세계가 초긴장상태에서 조선을 주시하고있던 그때 청천강반에 울려퍼진 계단식발전소건설의 우렁찬 포성,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조선은 끄떡없이 제갈길을 간다는 당당한 선언이였다. 우리의 땅에서 우리의 물과 언제로 더 많은 전기를 짱짱 생산하여 부강조국건설의 횃불을 더 높이, 더 억세게 추켜들리라는 우리 당과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의 퇴성이였다.

자기의 힘을 믿고 일떠서는 인민처럼 강한것은 없다. 그 정신처럼 과감하고 위력한것은 없다.

자력갱생의 대전경화, 이것이 청천강전역의 긍지높은 또 하나의 이름이다. 강한복판에 뿌리를 박고 언제가 솟는다.

수력발전소건설장이라면 의례히 보게 되는 례사로운 광경앞에서 우리 가슴은 어찌하여 불덩이라도 안은듯 뜨거워지는가.

아찔한 수문기둥벽을 따라 설치된 박달나무레루가 눈길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언제건설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기중기를 그 레루를 따라 오르내리는 광차가 대신하고있는것이다.

《기중기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수 없었습니다. 머리를 쓰니 좋은 착상이 떠올랐습니다.》

평양시려단의 한 돌격대원이 스스럼없이 하는 말이다.

비록 수수한 돌격대복을 입었어도 우리에게는 그들이 밀림속에 병기창을 차려놓고 연길폭탄을 만들어 원쑤들을 족치던 항일선렬들의 모습으로 안겨온다.

봄빛이 짙어가는 투쟁과 위훈의 전구에는 열정의 불바람이 뜨겁다.

건설장이 자랑하는 위훈많은 대오-황해남도려단이 맡아 건설하는 희천5호발전소건설장에 가면 아직도 방불하게 안겨오는 격전의 자취가 있다.

돌격대원들의 앞길을 막아보려는듯 하늘과 땅을 하나로 이으며 억수로 퍼붓던 대줄기같은 비발, 그속에서도 언제가 치솟았다. 비가 와도 젖지 않는 땅이였다. 웅벽구간의 성토공사에 힘을 집중하여 수면이상의 높이를 보장하고 그우에 혼합기들을 설치한 돌격대원들이 내리는 비발속에서도 아랑곳없이 타입전투를 진행하는 그 광경은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직사포를 고지우에 끌어올리고 원쑤들을 족치던 1211고지용사들의 모습그대로였다. 그칠줄 모르는 장마비속에서 박막을 치고 물우에 드러난 부분이 조금만 보여도 거기에 휘틀을 대고 타입을 진행했다는 그 이야기 어찌 무심히 들을수 있으랴.

불가능이라는 말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전구였다. 난관은 이들에게 있어서 물러서야 할 고비가 아니라 기어이 돌파해야 할 기적과 위훈창조의 조건일따름이였다.

《신념과 의지의 대결장》, 청천강계단식발전소가 시작되는 희천3호발전소건설장의 물길굴입구에 자강도려단의 돌격대원들이 보란듯이 써붙인 이 글발은 그대로 청천강전역의 문패인것이다.

그렇다. 청천강에 나래치는 기상은 자력갱생정신의 노도이다.

자본주의를 압도하는 사회주의의 승리는 어제도 오늘도 자력갱생정신의 승리이며 그 정신으로 살며 싸우는 우리의 앞길을 막을자 세상에 없다는것을 당당히 선언하는 자주정신의 거세찬 흐름이다.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로 온 세계에 앞서나가리!

폔이 아니라 피와 땀으로 조국번영의 그 진리를 력사와 시대에 값높이 새겨가는 청천강용사들의 위훈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2

하나의 길이 우리앞에 있다.

건설장이라면 의례히 있는 길이다. 하지만 이 길앞에 선 우리의 마음은 어찌하여 한없이 뜨거워지는것인가.

티검불 하나 없다. 금방 어느 돌격대원이 정히 쓸어놓은듯 비자루흔적이 력력하다. 길옆에서 작은 잎을 살랑이는 애어린 나무들, 하얀 조약돌들에 정성껏 둘러싸인 한그루, 한그루의 나무들에서도 티없는 진정이 한뜻으로 받들고 따르며 당의 뜻과 구상을 빛나는 실천으로 받들어가는 일심단결의 정신이야말로 력사의 그 어떤 기적도 창조하는 조선의 힘, 조선의 진짜국력인것이다.

진심처럼 강한것은 없다.

진심처럼 억세고 위력한것은 없다.

석수흐르는 물길굴에, 송전탑들이 뻗어간 아아한 산정들에, 사납게 소용돌이치는 강물속에 발전소건설자들이 새겨온 진하고진한 헌신의 자욱들이 어떤 신념과 의리에 원천을 두고있는가를 그 길들은 뜨겁게 전하여준다.

떠나온 고향도 다르고 새겨온 자서전의 글줄도 같지 않은 돌격대원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끓고있는 진정은 하나이다.

그 하나하나의 마음이 합치고합쳐 력사가 알지 못한 새로운 기적, 새로운 속도, 새로운 전변이 청천강반에 새겨지고있는것이다.

지난 2월말 산도 강도 흰눈속에 깊이 잠들었던 그때 우렁찬 동음을 울리며 수십대의 대형자동차행렬이 수송길에 올랐다. 휘틀제작용통나무 운반전투를 위해서였다. 북방의 깊은 산골군들을 지나 백수십㎥의 통나무를 운반해와야 하는 거리는 왕복 1000여리, 보통때에도 넘기 힘든 가파로운 령길들을 흰눈덮인 한겨울에 넘는다는것은 보통의 상식으로써는 상상하기 어려운것이였다. 하지만 수송대오는 붉은기를 펄펄 날리며 용감하게 행군길에 올랐다.

령하 수십℃나 되는 북방의 강추위속에서 천험의 생눈길을 헤치는 간고한 산악극복전투는 순간순간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아슬아슬한 고비의 련속이였다. 자동차들의 다이야가 련속 터져나갔고 한차를 건져내면 또 다른 차가 대오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런 속에서도 대오는 굴함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고요속에 잠긴 높은 령을 뒤흔든것은 자동차들의 동음만이였던가. 얼어붙은 산발을 쩡쩡 가르며 낮이나 밤이나 이들이 부르고 또 부른 《발걸음》노래!

그 노래를 부르면 힘이 샘솟고 추운줄도 몰랐다고, 그 노래를 부르면 두려운것이 없었다고 말하는 이들의 진정의 고백은 새길수록 뜨겁다.

흰눈덮인 한겨울에 깊고깊은 산중에서 대형화물자동차들이 육중한 짐들을 가득 싣고 끌없이 줄지어나오는 그 광경을 놈들이 위성으로 보았다면 아마 중요한 전략무기를 운반해오는줄 알았을것이라고 통쾌하게 말하는 한 수송대원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친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무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자나깨나 자기 령도자를 한마음으로 받들고 따르며 당의 뜻과 구상을 빛나는 실천으로 받들어가는 일심단결의 정신이야말로 력사의 그 어떤 기적도 창조하는 조선의 힘, 조선의 진짜국력인것이다.

예로부터 물처럼 무서운것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진짜로 강한 힘, 무엇으로써도 정복할수 없는 가장 위대한 힘이 무엇인가를 청천강은 똑똑히 아로새기였다.

지난해 8월, 발전소건설은 참으로 가혹한 재난을 당하였다. 례년에 없는 폭우가 몇차례나 들이닥쳐 건설장의 모든것을 흔적도 없이 쓸어간것이였다. 언땅을 파헤치고 한겨울의 추위와 싸우며 한치 또 한치 넓혀간 피와 땀의 결정체를 깡그리 휩쓸어버린 재난앞에서 돌격대원들의 가슴은 찢기는듯 아팠다.

《그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여 울고싶었습니다. 그때 려단장동지가 말하였습니다. 이제 주저앉으면 1년을 잃게 되고 그러면 우리 원수님께서 기다리시는 완공의 날은 그만큼 멀어질게 아닌가. …우린 그 말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평안남도려단의 한 처녀돌격대원이 하는 말이였다.

폭우는 모든것을 휩쓸어갔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진 맹세를 실천하고 그이께 기쁨의 보고를 하루빨리 드리려는 청천강용사들의 신념과 의지는 더 억세여졌다.

충정과 의리의 힘은 무한대이다. 조선의 모든 승리와 기적은 바로 그 위대한 힘이 안아온것이며 지금 이 시각도 태동하고있는 시대정신창조의 불길은 바로 그 위대한 힘의 강력한 분출인것이다.

청천강의 용사들은 바로 그 힘으로 몇달을 실히 걸려야 하는 장마철 피해복구를 단 며칠동안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바로 그 무한대의 힘으로 수수천년 변함없던 청천강의 흐름을 돌려놓는 가물막이공사들을 승리적으로 완수하였고 남포시려단의 돌격대원들은 단번에 여러개의 전선을 동시에 내밀어 기적의 시간표를 창조할수 있는 승리의 돌파구를 기어이 열어놓았다.

교대없는 전투원이 되여 하루에 2~3시간씩 자면서 타입공사를 진행하였다는 함경남도려단 전투원들의 이야기를 무심히 들을수 없다.

온 려단이, 취사원들까지 멸쳐나 질통을 지고 한사람이 매일 평균 한자동차분의 토량을 운반하며 수십일동안 연 5000여리를 달리고달려 끌끌내 가물막이뚝을 쌓았다는 그 추억너무도 격정에 젖어 되새기는 황해남도려단 일군의 목소리도, 적어가는 우리의 눈시울도 다같이 젖어들었다.

완공의 날을 앞당기자고 추운 겨울에도 칼바람이 몰아치는 산정에서 불돌을 가슴에 품고 아찔한 송전탑들을 세워간 용감한 수리개들의 심장이 무엇으로 끓었는가를 우리는 부디 묻지 않는다.

량안에서 동시에 타입을 진행할수 없다는 기존관념을 부정하고 지대적 특성을 리용하여 좌안과 우안에서 동시에 타입전투를 벌린 기발한 착상이 어떻게 떠올랐는가를 굳이 물을 필요가 없다.

종심도 깊은 전역은 연연 수백리여도 그 드넓은 전구에 흐르는 불같은 마음은 하나이다. 땅우에서, 물밑에서, 산정에서 돌격대원들이 새겨가는 헌신의 자욱들은 서로 달라도 그것이 가리키는 리정표는 하나이다.

우리 원수님의 뜻과 구상을 앞장에서 받들어 하늘땅 끝까지!

청천강은 이 정신으로 불타고 이 정신으로 노도친다.

바로 이 정신이 내 조국땅을 진감하는 위대한 속도창조의 원천이고 청천강에 나래치는 기적의 뿌리이다.

여기서는 매일, 매 시각 노래가 울려퍼진다.

《발걸음》, 《불타는 소원》,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입으로가 아니라 심장으로 부르는 진정의 노래여서 그것은 기적의 원천이 되고 용맹과 힘의 마를줄 모르는 샘이 된다.

한껏 쏟는 땀이 위훈이 되고 뜨겁게 바치는 진정이 조국을 안아올리는 번영의 밀뿌리가 된다는것은 얼마나 긍지높은 일인가.

우리에게 그처럼 고귀하고 값높은 삶을 주시는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자들이 시대정신의 창조자가 되라고 뜨겁게 고무해주신 하늘같은 그 믿음, 끝없이 이어가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언제나 청천강의 돌격대원들을 잊지 않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해주시는 대해같은 은 그 은정, 우리 장군님의 뜻과 구상을 현실로 꽃피워가는 이들이 장하고 미더우시여 마음속 제일 가까이에 두시고 정을 더해주시는 해빛같은 사랑,

그것을 떠나 어찌 청천강의 기적을 말할수 있으랴.

위대한 사랑과 믿음에 보답과 의리가 따를 때 력사의 기적이 창조된다.

조선의 기적이란 바로 그 위대한 혼연일체가 낳은것이며 세기를 주름잡는 눈부신 속도들도 바로 그 위대한 단결의 주로우에 새겨지는것이다.

지난 4월 25일 밤 12시, 청천강전역의 수백리구간에는 격정없이 볼수 없는 장엄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날 전투계획을 또다시 넘쳐 수행한 청천강의 용사들이 대오를 엄숙히 정렬하고 평양하늘을 우러러 두볼을 격정의 눈물로 적시고 또 적시며 승리의 보고를 힘차게 드리던 가슴뜨거운 그 화폭,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들은 당앞에 맹세다진 이달의 공사과제를 또다시 빛나게 완수하였습니다!

지휘관들의 가슴에서도 애어린 돌격대원들의 심장에서도 뜨겁게 메아리쳐울린 이 승리의 보고는 정녕 모진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이들이 끌없이 창조해가는 눈부신 기적과 위훈의 밀뿌리가 무엇인가를 시대와 력사앞에 우렁차게 선언하는 청천강용사들의 승리의 대합창이였다.

청천강, 정녕 이 나라의 평범한 강이름으로만 부를수 없다.

청천강전역에 고동치는 기상과 정신은 조선속도창조에 떨쳐나선 천만의 심장을 고무하는 또 하나의 시대의 기발이다.

청천강의 노도치는 정신으로 살며 싸우자.

청천강반에 흐르는 기적과 위훈의 분과 초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자.

이것이 청천강의 전변이 온 나라에 주는 강렬한 충격이다.

청천강용사들의 공격속도로 어디서나 앞당길수 있는 모든것을 최대한 앞당기며 공격 또 공격만을 아는 청천강의 기상과 본때로 련속타격, 련속공세를 들이대야 한다.

어렵고 간고할수록 자기 령도자에 대한 충정의 한마음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기적을 창조하고 시련을 돌파하는 청천강용사들의 그 신념과 의지로 어떤 난관속에서도 당이 구상하고 결심한것을 최상의 수준에서 가장 완벽하게 해제끼는 결사관철의 정신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초소, 모든 분야에 세차게 나래쳐야 한다.

누구든 어렵고 힘든 일에 부닥친다면 지금 이 시각도 용암처럼 끓고있는 청천강의 물결에 자신을 비추어보라.

참된 행복을 원하거든 정든 집 멀리 떠나 가족, 부부, 자매, 형제돌격대원이 되여 위훈의 창조자로 사는 청천강의 돌격대원들의 그 정신세계에 자신을 세워보라.

가장 아름다운 삶, 참된 행복이 우리 원수님의 뜻과 구상을 받들고 따르는 영광의 한길에 있다.

천만이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사랑하는 우리 조국을 번영의 상상봉에 높이 떠받들어올리기 위해 몸과 맘 다 바쳐 투쟁할 때 최후승리의 그날은 더 빨리, 더 눈부시게 다가올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따라 광명한 미래에로 폭풍쳐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밝고 창창한 앞날을 확신하며 청천강은 지금 이 시각도 거세차게 물결친다.

시대의 격류가 되여, 승리의 노도가 되여!

방 성 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고있다.
-금성뜨락또르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해설

《예술은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있는 무기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명언에는 예술은 강한 사상정서적감화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심장에 혁명의 불, 투쟁의 불을 달아주고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투쟁의 무기라는 심오한 뜻이 담겨져있다.

인민대중의 사상정신력을 폭발시키는데서 예술은 비상한 견인력을 가지고있다. 혁명적인 예술은 사람들에게 혁명적세계관과 투쟁의 진리를 가르쳐준다. 사람들은 예술을 통하여 혁명의 진리를 터득하고 그것을 자기의 확고한 세계관으로 받아들이며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더욱 가다듬게 된다. 사상정서적감화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차게 격동시키면서 그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데 예술의 독특한 위력이 있다.

예술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수행에서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는 사상정신적무기이다.

혁명적인 문학예술은 우리 혁명이 간고한 시련을 이겨내고 끊임없이 승승장구해올수 있게 한 원동력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피어린 항일의 불길속에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유격대원들을 불굴의 투사, 불사조들로 키워냈으며 전화의 나날에 싸우는 고지마다에서 울려퍼진 전시가요들은 원쑤들을 전률케 하고 적들의 아성을 짓뭉개버리는 위력한 무기로 되였다. 전후의 빈터우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세인을 놀래우는 변혁을 이룩할수 있은것도, 1970년대에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게 된것도,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에서 련전련승의 기적이 창조된것도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예술의 위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오늘 예술을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로 틀어쥐고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다그쳐나가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얼마전 백두산지구에서 울려퍼진 모란봉악단의 노래포성은 항일의 진군나팔소리와 같이 온 나라를 백두의 혁명열, 투쟁열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는데서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였다. 사상예술성이 높고 호소성이 강한 예술작품들은 수천의 식량이나 수만발의 포탄을 대신할수 있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

예술은 온 나라에 혁명적랑만과 전투적기백이 차넘치게 하는 투쟁의 무기이다.

정서와 랑만이 없는 생활속에서는 삶의 기쁨도 느낄수 없고 투쟁의 열정도 나올수 없다. 혁명투쟁이 간고할수록 혁명적랑만에 넘쳐 락천적으로 명랑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참다운 예술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열정과 풍부한 정서, 약동하는 생기와 래일에 대한 희망을 안겨준다. 혁명적문학예술의 위력은 온 사회가 혁명적랑만과 활력에 넘쳐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나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된다. 오늘 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투장들마다에 높이 울려퍼지는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내 조국의 기상과 숨결을 느끼며 조선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서도록 하고있다.

노래소리 높은 곳에 혁명의 승리가 있다. 혁명적인 문학예술의 포성을 더욱 힘차게 울려나갈 때 천만군민의 정신력은 비상히 높아지고 우리의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는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윤 철 희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은 오늘의 총진군의 승리를 위한 근본담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80(1991)년 5월 10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당세포를 강화하자》**는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안아온 기념비적문헌이며 전당의 당세포들이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끝까지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을 강화발전시키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는데서 당세포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모든 당원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혁명전사로 키우고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하며 군중과의 사업을 심화시키고 당세포비서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세포를 강화하기 위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특히 로작에 제시된 **《모든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자!》**라는 전투적구호는 전체 당원들을 수령결사옹위, 당정책관철의 선봉투사로 억세게 키우고 모든 당세포들을 충정의 대오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갈수 있게 하는 고무적기치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제시하신 사상리론들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우리 2.8직동청년탄광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에서 뚜렷이 과시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새겨져있는 우리 2.8직동청년탄광은 평양의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에 석탄을 보장하는 대규모생산기지이다.

우리 탄광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나라가 다 아는 직동탄부로, 선군시대의 전형으로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신 김유봉영웅과 같은 당세포비서의 훌륭한 본보기가 나오게 되였으며 모든 당세포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맨 앞장에서 받드는 전위대오로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당세포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곧 우리 혁명대오를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대오로 만드는 사업으로 되며 당세포만 강하면 그 어떤 파업도 성과적으로 해낼수 있다는것이 지난 기간 우리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이다.

오늘의 총진군에서 당세포의 역할을 더욱 높이는것은 모든 당원들이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로 위훈떨치게 하는 선결조건이다.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혁명적진군은 수령결사옹위의 진군이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진짜배기혁명가, 열혈투사들로 구성된 당세포들이 당을 받드는 초석을 이룰 때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이 비상히 강화되게 된다.

초급당위원회는 모든 당세포들을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의 전위대오로 꾸리는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결심은 곧 진리이고 실천이며 원수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에게는 점령 못할 요새도, 극복 못할 난관도 없다는것이 당세포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우리가 심장깊이 체득한 철리이다.

오늘의 총진군에서 당세포의 역할을 더욱 높이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 대고조전투장들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근본열쇠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어떻게 관철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당세포의 혁명성과 전투력에 달려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것은 모든 당조직들앞에 나서는 기본임무이며 당조직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서만 당의 로선과 정책이 성과적으로 관철되고 그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게 된다고 가르치시였다.

최근당위원회는 모든 당세포들이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당정책관철에서 맥을 추지 못하는 당세포는 살아있는 당세포라고 말할수 없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명심하고 사업을 더 잘해나가도록 하기 위한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왔다. 초급당위원회의 책임일군들부터가 막장과 생산현장에 내려가 로동자들과 일도 같이하고 결린 문제도 풀어주면서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왔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우리 탄광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당세포들의 중요한 임무로 내세우고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김정일애국주의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비롯한 사상교양사업을 환경과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화선식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8갱 5중대당세포를 비롯한 많은 당세포들이 충성의 당세포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으며 당원들모두가 견결한 수령결사옹위투사로 자라나게 되였다.

오늘 선군조선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려는 우리의 신념은 더욱 굳세여지고있다. 석탄증산으로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자, 이것이 우리 탄광의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억척불변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평양으로 가는 사회주의경쟁도표를 게시하여 자나깨나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그리움을 안고 석탄생산에 떨쳐나 해마다 10여만의 석탄을 생산한 5갱 5중대당세포 당원들과 탄부들의 고결한 충정의 세계가 막장 그 어디에나 차넘치고있으며 그것은 곧 날로 높아가는 석탄산으로 이어지고있다.

백옥같은 충정을 지니고 당세포사업을 사람들의 마음과의 사업, 감정과의 사업으로 진행하는것을 기본임무로 내세우고 일해나가도록 이끌어주는 과정에 모든 탄부들이 당세포의 숨결이자 당의 숨결이고 당세포의 목소리이자 당의 목소리이며 당세포의 모습이자 당의 모습이라는것을 가슴깊이 새겨안게 되였다.

지금 우리 탄광의 당세포비서들속에는 그 어떤 명예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묵묵히 헌신하며 오래동안 당초급일군의 영예를 빛내여나가는 당세포비서들도 있고 높은 석탄증산과 뜨거운 인정미로 대중으로부터 《우리 세포비서》라는 호칭으로 불리우는 당세포비서들도 있다. 이런 당세포비서들이 많기에 당세포들이 전투력있고 힘있는 전위대오로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우리 탄광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이 언제나 훌륭한 결실을 맺고있는것이다.

충성의 당세포대렬이 나날이 늘어나고 당의 숭고한 구상과 의도가 빛나게 구현되고있는 현실을 통하여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당세포를 강화하자》에 제시된 사상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심장깊이 절감하고있다.

우리는 당세포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감으로써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승리를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위훈의 창조자로 위용떨칠것이다.

2.8직동청년탄광 초급당비서
리 동 철

태양의 축복받은 새 세대들의 기쁨과 행복 끝없어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첫기 야영 시작, 다채로운 체육문화행사 진행

【원산 5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에 의해 훌륭히 일떠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첫기 야영이 시작되였다.

새 세대들이 사회주의문명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뜨거운 은정속에 세상에 자랑할만 한 아이들의 호텔, 멋쟁이궁전의 첫 주인이 된 학생소년들의 환희와 격정의 파도로 야영소는 명절처럼 흥성이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초급중학교, 중등학원 학생들과 원아들, 최전연초소 군인자녀들, 전국소년축구경기대회 결승경기에 참가한 학생소년들,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모범인 소년단원들을 비롯하여 뜻깊은 첫기 야영에 참가하게 된 학생소년들의 가슴가슴은 꿈만 같은 오늘의 이 행복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으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전체 학생소년들과 교직원, 일군들은 야영소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첫기 야영시작모임이 10일에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최룡해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강원도내 당, 정권기관, 청년동맹일군들, 야영소일군들과 교직원들, 야영생들이 참가하였다.

야영시작을 알리는 신호나팔소리가 랑랑히 울려퍼졌다.

《소년단행진곡》이 울리는 가운데 야영기발이 게양되였다.

학생소년들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덕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강성조선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나라의 기둥감들로 억세게 자라날 굳은 맹세를 다지며 야영기를 향해 소년단경례를 하였다.

모임에서는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온 나라 학생소년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희한하게 개건된 야영소에서 첫기 야영을 하게 된 남다른 기쁨과 감격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새 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고 한평생 학생소년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후대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뜨겁게 어려있는 행복의 요람이라고 말하였다.

세계의 으뜸가는 야영소와 더불어 빛나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며 학생소년들이 세상에 부럼없어라고 목청껏 부르는 노래소리는 우리 당의 후대사랑의 영원한 송가로 세기를 이어 더 높이 울려퍼지게 되였다고 격정을 터치였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어린이들도 많지만 우리 학생소년들처럼 위대한 태양의 축복속에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떠받들리우며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마음껏 꽃피워가는 아이들은 없다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우리 학생소년들에게 돌려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새기고 선군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억세게 자라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든 야영생들은 앞날의 강성조선의 모습은 소년단원들의 성적증에 먼저 그려지게 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명심하고 야영기간에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야영활동방향과 방법대로 야영생활을 통하여 조직성과 규률성, 자립성을 키우고 집단주의, 애국주의정신으로 무장하며 체력을 튼튼히 단련하여 나라의 훌륭한 역군으로 준비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교직원들이 야영생들의 생활에 자그마한 불편도 없도록 친부모의 심정으로 보살펴주어 그들이 즐거운 야영기간을 한생의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이 끝난 다음 야영생들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이어 참가자들은 어머니당의 숭고한 후대관의 결정체인 야영소를 커다란 흥분과 경탄속에 돌아보았다.

이날 송도원의 자연풍치와 어울리게 훌륭히 건설된 야외운동장에서는 전국소년축구경기대회 결승경기참가자들의 축구경기가 있었다.

뜻깊은 야영소준공식날 경애하는 원수님께 자기들의 경기모습을 보여드린 남다른 긍지와 자랑이 소년축구선수들의 얼굴마다에 한껏 어려있었다.

앞날의 체육강국을 떠메고나갈 축구선수로 자라날 희망과 포부를 안고 꾸준히 련마해온 체육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는 선수들에게 관람자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첫기 야영을 축하하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이 국제친선소년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서장 《고마운 우리 해님》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중창 《대원수님들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요》, 6중창 《김정은원수님 고맙습니다》, 3중창 《원수님 먼길 다녀오셨습니다》, 가무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체육무용 《원수님 사랑넘친 송도원야영소》, 민족기악2중주 《나는야 꽃봉오리》, 목금과 중창 《달리자 사랑의 롱마타고》, 장고와 북재주 《사랑의 꽃수레를 탔네》, 노래와 춤 《원수님 축복안고 밝은 미래로》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한평생 《미래를 사랑하라!》는 혁명적신념을 지니시고 아이들이 나라의 왕으로 천만복을 누리도록 사랑의 서사시를 수놓아오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영원한 해님으로 높이 모시고 따르는 온 나라 학생소년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후대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자애로운 모습으로 온 나라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지켜주고 활짝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흠모의 정이 넘쳐흐르는 종목들은 관람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은혜로운 태양의 빛발로 후대중시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조선의 미래는 영원히 밝고 창창하리라는 철리를 모두의 가슴속에 새겨준 공연은 종장 《세상에 부럼없어라》로 끝났다.

온 나라의 축복속에 어머니당이 후대들에게 안겨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마음껏 야영을 즐기는 학생소년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기쁨의 노래소리는 동해명승지의 자랑을 더해주며 끝없이 울려퍼질것이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공업, 석탄공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합니다.》

채굴설비들의 만가동 보장

경원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경원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탄부들이 매월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드높이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당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석탄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탄부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일군들이 탄부들속에 깊이 들어가 심금을 울리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면서 그들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도록 하고있다.

련합기업소 책임일군들은 고건원탄광 수직갱대보수전투장에 나가 전투를 조직지휘하면서 탄부들을 로력적위훈에로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기술자, 기능공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창조적지혜를 발동시켜 수직갱승강기보수를 짧은 기간에 끝내도록 함으로써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하였다.

참모부서의 일군들은 석탄생산목표를 높이 세운데 맞게 채굴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전투조직을 빈틈없이 해나가고있다.

룡북청년탄광과 고건원탄광, 오봉탄광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룡북청년탄광의 탄부들은 굴진에 힘을 넣어 더 많은 석탄을 캐내기 위해 투쟁하고있다. 특히 고건원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채굴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매일 석탄산을 높이 쌓아가고있다.

북부지구탄광설비보수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내부예비를 찾아내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며 뽐프와 레루못, 탄차바퀴를 비롯한 석탄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부속품을 제때에 생산보장하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후방사업은 곧 사회주의수호전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부업농목장과 남새온실, 버섯기지 등 후방기지를 보다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어 탄부들을 고무해주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전투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명학탄광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명학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석탄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탄광의 일군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달에 들어와서도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하루평균 석탄생산량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채취공업에 힘을 넣어 석탄생산을 늘여야 화력발전소들도 만부하로 돌릴수 있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킬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탄광의 일군들은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정철식, 김경선, 리광욱동무를 비롯한 탄광의 일군들은 탄부들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석탄증산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탄부들모두가 석탄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온 탄광에 석탄증산의 불길이 타오르는 속에 가족들도 한사람같이 떨쳐나 남편들의 석탄증산투쟁을 적극 뒤받침해주고있다.

탄부들의 출근거리가 멀고 막장조건이 불리하지만 일군들은 여러차례의 협의회를 열고 걸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위한 작전을 잘해나갔다.

일군들은 통근차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부속품들을 자체로 마련하면서 탄부들의 입갱시간을 제때에 보장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이와 함께 갱막장들을 맡고나가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전투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동발나무가 더 요구되면 10여리나 되는 산판에 올라 나무를 베고 탄차가 부족되면 자체의 힘으로 보수하여 석탄운반에 적극 리용하게 하고있다. 일군들의 빈틈없는 전투조직으로 하여 탄부들의 생산의욕은 더욱 높아지고있다.

1월과 2월에만도 탄광에서는 많은 새 탄밭을 마련하여 수천t의 석탄을 더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탄광에서는 기술혁신사업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1갱 갱장 림용활동무와 공업시험소의 기술자들은 국가과학원 석탄과학분원 연구사들과 힘을 합쳐 수평식관성콘베아를 생산에 받아들임으로써 석탄생산을 1.2배로 늘일수 있게 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2갱 갱장 백룡철, 3갱 갱장 김일명동무들을 비롯한 탄부들은 앞선 채탄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하루 석탄생산량을 늘이고있다. 그리고 합리적인 로력조직과 탄차리용방법으로 석탄생산실적을 계속 높여나가고있다.

특히 3갱 채탄3중대 중대장 신현송동무는 앞선 채탄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지난 10년동안 해마다 년간계획을 넘쳐 수행한 자랑을 안고 대중적기술혁신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5갱, 6갱의 탄부들도 채탄장관리를 깐지게 하고 앞선 채탄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하루평균 석탄생산량을 계속 늘여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나라의 전력생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석탄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형봉탄광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

전천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전천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탄광을 현지지도하신 때로부터 6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높은 석탄생산성과로 빛내일 드높은 열의안고 정초부터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올해 매달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기세를 늦추지 않고 5월계획수행에 총력량을 집중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탄광의 일군들은 석탄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부속품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탄광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백수십㎥의 동발나무를 자체로 해결하여 굴진을 원만히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준비굴진은 6개월이상, 작업굴진은 3개월이상 확고히 선행시키고있다.

탄광에서는 권양설비와 전차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탄차머무름시간을 줄이면서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기 위해 헌신적투쟁을 벌리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지배인 우등남동무를 비롯한 탄광의 일군들은 갱막장에 자주 나가 생산총화를 실속있게 진행하는 한편 운전공들이 전차, 권양기, 압축기, 양수기를 비롯한 많은 설비들을 눈동자와 같이 애호관리하며 기술관리를 잘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탄광의 일군들은 굴진, 채탄중대들의 석탄생산실적과 갱들의 설비가동정형, 여러가지 부속품생산정형을 매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도록 이끌어주고있다.

갱과 직장, 굴진중대, 채탄중대들사이의 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석탄증산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공화국창건 20주년기념갱, 온정갱, 전차갱, 고암갱들에서 일군들과 탄부들은 앞선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석탄생산계획을 매일 넘쳐 수행하고있다.

운반갱의 로동자들도 전차선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며 전차의 만가동과 탄차들의 회귀률을 훨씬 높이면서 저탄장에 석탄산을 높이 쌓고있다.

직장장 신유남동무를 비롯한 공무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탄차바퀴, 베아링을 비롯하여 수십종에 달하는 부속품과 막장소공구를 원만히 생산보장하여 탄광의 석탄생산정상화를 믿음직하게 뒤받침하고있다. 이들은 탄광의 기술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능력이 큰 양수설비의 본체제작을 자체의 힘으로 적극 내밀고있다.

당조직에서는 혁신자축하모임을 잘 조직하여 로동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전투적사기를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이와 함께 후방사업은 곧 사회주의수호전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명심하고 후방기지를 효과있게 리용하여 갱들의 영양제식당마다에 고기와 남새를 떨구지 않고 보장하도록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 높은 석탄생산성과로 빛내이려는 일군들과 탄부들의 드높은 열의로 하여 석탄생산실적은 계속 높아지고있다.

특파기자 동세웅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들에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집중시켜 새로운 비약의 봉화를 지펴올리기 위한 북소리를 세차게 울려야 합니다.》 김 정 은

조선속도창조를 위한 전투에서 우리도 한몫

국립민족예술단 예술인들과 직총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제선동은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집단적혁신에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수단입니다.》

얼마전 국립민족예술단 예술인들과 직총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원들이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기상이 나래치는 위성과학자거리건설전투현장에서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포성을 힘차게 울리였다.

재청 또 재청, 열렬한 박수갈채

국립민족예술단의 예술인들은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의 군인건설자들앞에서 그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들을 맑고 독특한 음색과 풍부한 성량으로 훌륭히 형상하였다.

《장군님 가까이엔 병사가 산다네》, 《어머니의 행복》, 《먼저 찾아요》, 《영웅된 아들소식 꿈같이 전해왔네》, 《보람찬 병사시절》…

병사의 긍지와 영예를 심어주는 노래, 자식들이 훌륭한 병사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절절한 심정이 담겨진 노래, 군대와 인민사이에 뜨겁게 오가는 혈연의 정을 반영한 노래들은 군인건설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박수를 치며 재청하는 군인건설자들에게 국립민족예술단 예술인들은 흥겨운 민족장단에 맞추어 《군밤타령》, 《까투리타령》 등 민요들을 련속 불러 그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하였다.

공훈배우 강영필동무를 비롯한 국립민족예술단의 예술인들이 노래를 부르자 이들의 경제선동공연을 관람하던 군인건설자들도 하나둘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공연이 끝난 후 조선인민군 김명호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하기 위해 스스로 마음속돌격구령을 내리며 일한 피곤이 어느새 다 풀렸다고, 전투적사기를 부쩍 올려준 예술인들의 고무를 받고보니 보다 높은 공사실적을 이룩할 열의가 불타오른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였다.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국립민족예술단의 예술인들 본사기자 찍음

군인건설자들은 그날 철근조립과 휘틀조립, 벽체콩크리트치기를 립체적으로 내밀어 새로운 조선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의 불을 더 세차게 지펴올렸다.

혁명적랑만이 차넘치는 경제선동의 위력은 이렇듯 크다.

비발속에서도 울려퍼진 노래

직총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의 예술선전대원들도 우리 과학자들을 사랑의 금방석에 앉히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의 건설자들을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북소리로 힘있게 고무하였다.

5월초에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에 달려나온 직총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원들은 벌써 20여차의 기동성있는 경제선동활동을 진행하여 건설장의 전투적 분위기를 고조시키였다.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하기 위해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온 건설장의 혁신자들을 직접 목마에 태우고 건설현장을 돌며 축하방송도 하였고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노래들을 불러 건설자들의 가슴가슴을 혁명열, 투쟁열로 높뛰게 하였다.

예술선전대원들은 《공격전이다》, 《그대가 걸어온 길은》, 《단숨에》를 비롯하여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의 전투원들의 심장마다에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주게 하는 노래들을 불러주어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얼마전에는 비가 쏟아지는 속에서도 아랑곳없이 마이크를 억세게 틀어쥐고 현장이 들썩하게 화선선동의 포성을 힘차게 울리였다.

—온몸이 물참봉이 되였지만 순간도 공사를 멈추지 않는 건설자들에게 우리 역시 노래의 포성을 중단없이 울려주자!

이런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운 직총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원들은 비가 쏟아지는 속에서도 건설현장을 떠나지 않고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높이 울리였다.

비발속에서도 울려퍼진 혁명적인 노래들은 그대로 사상전의 포성이였고 건설자들을 불러일으키는 계속전진의 힘찬 돌격구령이였다.

하기에 속도전청년돌격대 제6려단의 전투원들은 예술선전대원들이 우리와 호흡을 같이해주니 정말 힘이 솟는다,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맡은 대상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올리겠다고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본사기자 백 성 근

청천강반을 들끓게 한 경제선동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방송원들

얼마전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방송원들의 힘있는 경제선동이 여러날동안 벌어졌다.

우리 당사상전선의 전초선에서 사상공세의 마이크를 억세게 틀어쥔 그들이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청천강반으로 달려나와 진행한 경제선동은 처음부터 건설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들이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으로 달려나와 경제선동을 벌리기 위한 준비를 갖추기 시작한것은 지난 3월 중순이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적극적인 보도전을 벌려가던 어느날 이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에 접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대로 방송활동을 더욱 진취적으로 벌려나가자. 들끓는 현실을 체험하고 기백넘치는 경제선동활동을 벌리면서 시대의 선도자, 나팔수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자.

당조직의 지도밑에 일군들의 협의회가 진행되고 방송원들의 활동을 들끓는 현실에 더욱 밀착시켜 벌려나가기 위한 경제선동력량이 무어졌으며 첫 공연대상지로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이 정해졌다.

김길묵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방송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중요건설대상의 앞자리에 내세워주신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 벅찬 현실을 체험하며 경제선동활동을 벌리게 된 긍지와 자각을 안고 작품선정과 창작, 기량훈련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갔다.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지난 4월 19일 현장으로 달려나와 희천11호발전소건설장에서 공연의 첫막을 올린 이들은 련이어 희천3호와 희천6호, 희천9호발전소건설장들에서 경제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리였다.

인민방송원 최성원동무는 불멸의 송시 《광명성찬가》를 크나큰 격정속에 터치데 이어 시 《용서하시라》를 격조높이 랑송하여 건설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인민방송원 전성희동무와 여러명의 녀성방송원들은 중창 《불타는 소원》을, 박옥희동무는 녀성독창 《나의 어머니》를 훌륭히 형상한것을 비롯하여 허철, 김윤심, 문진혁동무를 비롯한 방송원들이 혼성2중창 《그이 없인 못살아》, 남성중창 《어머니의 목소리》, 혼성중창 《우리의 래일이 말해줄거야》, 남성독창 《연길폭탄》, 녀성독창과 남성방창 《바다의 노래》, 남성독창 《내 고향》, 합창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등 다채로운 종목들에 출연하여 돌격대원들의 마음을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결사관철의 일념으로 불타게 하였다.

건설장마다에서 영웅적결사전을 벌려가고있는 돌격대원들의 불굴의 투쟁위훈은 그대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열의로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충정의 모습이였기에 이들은 선동적인 화술소품들과 합창 《희천에서 만나자》도 현장에서 새로 형상하여 공연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었다.

지금 이들의 경제선동에 무한히 고무된 현장지휘부일군들과 각 단위 전투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대로 사상의 위력으로 발전소건설의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제끼며 장마철전까지 내세운 공사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총돌격전에서 련일 새로운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류 기 풍

청산벌에 메아리친 시대의 진군가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의 관록있는 작가들이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을 찾아 그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담은 시작품창작전투를 벌리면서 힘있는 경제선동을 진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인은 시대의 가수, 시대의 나팔수가 되여야 한다.》

제3작업반포전에서 작가들은 모내기일정별목표를 높이 세우고 올해농사에서 통장훈을 부를 기세드높이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을 축하하여 경제선동의 첫막을 올리였다.

먼저 가사 《해돋이순간》과 예술영화 《우리는 여기서 산다》의 주제가사를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있는 시인 김석천동무가 시 《온 나라가 청산리를 지켜본다》를 랑송하였다.

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으로 빛나는 청산협동농장이 언제나 앞장서나가기를 바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 온 나라 인민들의 기대가 뜨겁게 맥박치는 시랑송은 이곳 농업근로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었다.

서사시 《그리움의 강산에 흰눈이 내린다》를 비롯하여 많은 시와 가사를 훌륭히 창작하여 당에 크나큰 기쁨을 드린 이름있는 시인인 시문학분과위원장 문용철동무가 시 《그대들을 믿는다》를 랑송하였다.

우리 인민모두가 그로록 사랑하고 즐겨부르는 노래 《불타는 소원》과 《선군의 나의 조국아》의 가사를 창작한 관록있는 시인 황성하동무가 소개되였다.

가정부인의 몸으로 청산벌에 달려와 농업근로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녀성시인의 시 《그대들에게 바치는 시》는 농업근로자들을 크게 고무하였다.

열렬한 재청을 하는 농업근로자들을 향해 황성하동무가 노래 《불타는 소원》을 부르자 모두가 그의 노래를 따라부르며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마음을 불태웠다.

우리 인민들의 기억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와 가사 《3대장군의 총》을 비롯하여 훌륭한 명작품을 내놓은 김일성상계관인 김만영동무가 들끓고있는 청산땅의 숨결을 반영하여 현지에서 창작한 시 《청산리의 봄》을 랑송하였다.

조국수호의 제1선참호를 지켜선 농업근로자들, 영광의 땅 청산벌의 주인들에게 드리는 작가들의 시는 온 청산벌을 부글부글 끓게 하였다.

이들의 경제선동은 다음날 새벽에도 계속되였다.

제1작업반포전에서 진행한 이들의 전투적인 경제선동은 출근길에 오른 농업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모내기전투의 승리를 예고하며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로 사상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청산벌을 들끓게 한 이들의 힘있는 경제선동활동에 고무된 이곳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농촌테제발표 50돐이 되는 력사적인 올해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충천한 기세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김 경 철

사상공세의 불바람 일으켜간다

피바다가극단과 국립연극단의 예술인들

우리 인민에게 보다 문명한 정서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고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인민의 즐거운 문화휴식터인 중앙동물원이 자기의 면모를 일신하고있다.

다양한 주제의 무대예술작품들을 수많이 창작창조한 관록있는 예술단체들인 피바다가극단과 국립연극단의 예술인들은 중앙동물원개건보수공사장으로 달려나가 혁명적열정과 랑만이 차넘치는 현장경제선동으로 건설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제선동은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위력한 수단입니다.》

우리 인민의 사랑을 받는 시대의 명곡들인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와 《조국찬가》로 시작된 경제선동은 처음부터 사람들의 심금을 틀어잡았다.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에서 주인공역을 맡고있는 공훈배우 최예옥동무가 부른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절절한 노래가 울려퍼지자 건설자들은 한평생 인민의 행복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가슴적시였다.

맑은 소리로 재치있는 예술적기량을 펼쳐보인 녀성독창 《봄맞이처녀》, 민족적흥취가 넘치는 녀성민요독창 《우리 장단이 좋아》, 남성독창 《아버지 어머니의 청춘시절》 등의 종목들도 건설자들에게 끝없는 희열과 랑만을 안겨주었다.

공훈배우 손철남동무의 독창 《위대한 내 나라》는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신 우리 조국을 세계만방에 더욱 빛내여갈 철석의 의지를 다시금 가다듬게 해준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절찬을 받았다.

우리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있는 이름있는 배우들의 출연으로 경제선동무대는 더욱 이채를 띠였다.

공훈배우 문명삼동무는 풍만한 성량으로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견결한 투지가 반영되여있는 《혁명가》를 훌륭하게 불러 온 전투장을 혁명열, 투쟁열로 세차게 들끓게 하였으며 인민배우 장영옥동무가 부른 노래 《천리마 달린다》는 모든 건설자들의 심장을 비약의 속도, 천리마속도를 창조한 전세대들처럼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하여 맡겨진 공사과제를 제기일안에 무조건 끝내고야말 맹세로 불타오르게 하였다.

국립연극단 배우들인 박철영, 리현희동무들이 출연한 재담들도 웃음과 랑만을 안겨주며 건설자들의 사기를 부쩍 높여주었다.

특히 리현희동무가 읊은 시 《나는 로동자의 아들이다》는 로동계급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불러오며 사람들의 눈굽을 뜨겁게 적셔주었다.

그리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로동계급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과시할 맹세를 더욱 굳게 하였다.

피바다가극단과 국립연극단 예술인들의 경제선동을 본 류경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직장장 조명현동무는 예술의 감화력은 참으로 크다, 직장안의 모든 건설자들이 신심에 넘쳐있다, 오늘 전투과제는 보나마나 넘쳐 수행될것이라고 격조높이 말하였다.

5직장에서 일하고있는 주경수동무도 이렇게 현장에서 배우들의 공연을 직접 보니 극장에서 보던것보다 더 좋다고, 정말 새 힘이 용솟음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자기들의 전투현장에 계속 나와달라고 부탁하였다.

당사상전선의 전초선인 문학예술부문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를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예술인들은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는 격동적인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투장들마다에서 혁명의 북소리를 더욱 높이 울려갈것이다.

조 향 미

조선로동당대표단과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 회담 진행

조선로동당대표단과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의 회담이 10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강석주동지와 박근팡부부장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상대측에서 낭골로 음붐바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자기 당활동정형을 통보하고 두 당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담은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을 위하여 연회 마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을 위하여 10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낭골로 음붐바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 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강석주동지와 박근팡부부장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강석주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이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고무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히휘케푸네 포함바대통령각하의 령도밑에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이 정치, 경제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새 나미비아를 건설하기 위한 귀 당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앞으로도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변함없이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낭골로 음붐바총비서가 연설하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나미비아공화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준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진정한 사회건설을 위한 나미비아인민의 투쟁을 성심성의로 도와주고있는 조선인민을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과 인민은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은 조선로동당의 투쟁경험을 따라배우며 진실한 친선 및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 위원장인 존경하는 히휘케푸네 포함바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영국에 가는 국가해사감독국대표단 출발

영국에서 진행되는 국제해사기구 해상안전위원회 제93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전기철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가해사감독국대표단이 10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제17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할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들 도착

제17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할 중국, 도이췰란드, 싱가포르, 중국대북의 대표단들이 10일 비행기와 렬차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에 앞서 웰남, 이딸리아, 꾸바의 대표단들이 왔다.

대고조진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의료봉사활동

보통강구역인민병원 구강분원에서

보통강구역인민병원 구강분원의 의사, 보철사들이 구강의료봉사활동을 전투적으로 벌려 올해의 대고조진군길에 떨쳐나선 각계층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지난 10년동안 이곳 의료일군들은 1만 수천명의 전쟁로병, 영예군인, 제대군관들에 대한 구강검진을, 17만여명의 소학교, 중학교학생들에 대한 이삭기예방검진과 17살이상의 41만 수천명 주민들에 대한 보철검진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병원에 찾아온 28만 수천명의 주민들에 대한 구강치료와 4만 수천명의 주민들에 대한 보철치료를 성의있게 보장하였다.

특히 평양시와 지방의 여러곳에 달려나가 수천명의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구강치료와 보철치료를 진행하였다.

그 나날 그들은 분에 넘치게도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받아안았으며 얼마전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영광을 지니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보건부문에서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치료예방사업에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이 더 잘 미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언제나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생전에 여러차례에 걸쳐 나라의 구강의료봉사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병원의 일군들인 정판철, 홍영란동무들은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구역의 주민들에 대한 검진과 치료를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내밀었다.

분원장 김철수, 의사들인 리성실, 김선숙동무를 비롯한 분원의 의료일군들은 병원일군들의 적극적인 방조속에 해마다 구역안의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 제대군관들은 물론 주민들과 소학교, 중학교학생들을 지역별로 담당하고 그들에 대한 예방검진과 치료를 정해진 기일에 정확히 진행해왔다.

문수지구에 현대적인 류경구강병원을 일떠세워주시려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에 무한히 고무된 분원의 의료일군들은 지난해에 보철의료봉사를 받아야 할 대상들을 동별로 료해장악한데 이어 그 대책을 위해 집체적지혜와 열정을 합치였다.

신원동과 류경2동, 석암동의 주민들이 보철사들인 리정남, 전광수동무를 비롯한 분원의료일군들의 성의있는 보철의료봉사를 받았다.

병원의 구강분원 의료일군들은 자신들도 들끓는 대고조격전장의 전투원들이라는 불같은 자각과 열의를 안고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단위들에 달려나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료전투를 벌려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였다.

분원의 의료일군들은 평양산문사, 조선중앙통신사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도착한 즉시 기자, 편집원들의 구강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전투를 진행함으로써 이들이 당사상전선의 앞장에서 항일유격대의 나팔소리를 힘있게 울리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또한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와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 등 10여개 단위의 로동계급과 그 가족들에 대한 구강검진 및 치료와 보철의료봉사를 친혈육의 심정으로 하여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 돌봐주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150일전투, 100일전투를 힘있게 다그쳐온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로동자들과 숨결을 같이하기도 하고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막장에서 그곳 탄부들과 발걸음도 함께 하는 등 이들이 바쳐온 불같은 노력은 가는 곳마다에서 생산자들의 의욕을 세차게 북돋아주었다.

엄은영, 방명애, 김경애, 김향란, 천리향동무들은 들끓는 대고조격전장들에 주저없이 뛰여들어 날과 날을 헌신으로 수놓아갔으며 김철, 김운성, 리은철동무들은 현지에서 몇달씩 침식하면서 제기된 보철과제들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조국땅 그 어디서나 세인을 놀래우는 조선속도가 창조되는 오늘의 벅찬 시대에 자신들이 서야 할 위치를 스스로 찾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지난 10년간 소문없이 많은 일을 해온 보통강구역인민병원 구강분원의 의사, 보철사들은 지금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전투를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우리 나라 녀자선수들

2014년 아시아청소년레스링선수권대회에서 3개의 금메달 쟁취

우리 나라 녀자선수들이 타이에서 진행되고있는 2014년 아시아청소년레스링선수권대회에서 3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박미경선수는 43kg급경기에서 까자흐스딴, 인디아선수들을 제압하고 필승의 신심에 넘쳐 결승경기에 진출하였다.

그는 주체적인 경기전법과 완강한 투지, 높은 기술을 발휘하여 일본선수를 압도적인 점수차로 이겼다.

김선향선수는 46kg급경기에서 웰남, 일본, 까자흐스딴선수들을 모두 누르고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49kg급경기에서 끼르기즈스딴, 까자흐스딴, 중국대북선수들을 이긴 연조화선수도 결승경기에서 일본선수를 보기 좋게 물리치고 1위를 하였다.

2014년 아시아청소년레스링선수권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거둔 자랑찬 성과는 문명강국건설을 위한 대비약적혁신창조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어머니의 손길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펜을 든것은 저를 진심으로 돌봐주는 군당일군들을 소개하고싶어서입니다.

지난해 12월 어느날이였습니다. 제가 도인민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군당책임일군은 저의 병치료에 좋다는 약재들과 영양식품들을 일군들의 손에 들려주며 빨리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올해 설날 아침에는 저의 어머니와 세대주, 자식들의 손목을 잡고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병치료에 좋다는 보약재와 영양식품들을 안겨주며 제가 빨리 병을 털고 일어나야 마음놓고 일할것 같다고 하는것이였습니다.

제가 퇴원하는 날에는 승용차에 세대주를 태워보내며 마중해오도록 해준 군당책임일군입니다.

정말 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였습니다. 저는 이런 훌륭한 당일군들을 키워준 어머니당에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철산군 읍 98인민반
영예군인 김 정 애

실 화

해빛

봄빛이 흘러넘치는 산기슭의 소로길로 두 사람이 걷고있다.

회창군에 사는 정봉운과 그의 안해 전봄순이다.

몇해전까지만 해도 정봉운은 일년치고 집울타리를 벗어나본 적이 몇번 안되였고 더우기는 안해와 함께 거리에 나서는것을 몹시 꺼리였다. 한쪽팔을 잃고 실명한 자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싶지 않았고 안해가 사람들로부터 앞못보는 사람의 안해라는 말을 듣는것이 싫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떠한가.

싱글벙글 입가에 웃음을 담고 손을 꼭 잡고 걷는 그들을 보며 오가던 사람들이 승얼댄다.

—저 사람이 글 잘 쓴다는 정봉운이요?

—무슨 좋은 일이 있는게지.

…

글 잘 쓰는 사람!

정녕 이렇게 불리우는 날이 있으리라고 꿈엔들 생각해보았던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이며 우리 당의 정치는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정치, 인덕정치이다.》

이제 몇걸음이면 광산당위원회에 이르게 된다.

지금껏 창작한 시들로 작품집을 묶어가지고 찾아가는 길이다.

(아, 경애하는 원수님께 나의 작품집을 보여드릴수만 있다면…)

정봉운은 가슴속에 봄물처럼 차오르는 이 소원이 꼭 이루어질것만 같았다.

그럴수록 시창작은커녕 생마저 포기할번 하였던 자기를 오늘에로 이끌어준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

✻ ✻

《선생님들, 난 이젠 영영 앞을 보지 못합니까. 예?》

회창군의 어느 한 광산에서 착암공으로 일하던 정봉운이 뜻밖의 일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온지도 벌써 30일이 지났다.

눈수술만도 3차, 그러나 너무도 큰 치명상을 입은것으로 하여 현대의학의 힘으로는 그에게 광명을 다시 안겨줄수 없었다.

게다가 오른팔마저 잃은 정봉운에게 과연 무슨 말을 해주어야 힘이 되랴.

이때 그에게 다가와 따뜻이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었다.

《제대군인착암공답지 않게 울긴, 일없소, 우리가 있지 않나.》

우리, 그 말이 정봉운을 더 쉽게 만들줄은 몰랐다.

정말 순간도 떨어져 살수 없는 우리 광산사람들이였다.

남달리 축구를 잘하는 자기를 보고 우리 갱 《11번선수》라고 떠받들어주고 어느 경기에서인가 두팔이나 넣었을 때에는 목마에 태워 사진까지 찍어주던 한집안식솔들,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하루가 멀다하게 찾아와 탉곰이며 보약, 사과며 배를 안겨주던 정다운 사람들,

그들을 다시는 볼수 없다고 생각하니 분통하기 그지없었다.

차라리 하는 모진 생각으로 몸부림쳐보기는 몇번이였던가.

정봉운은 끝내 두눈을 뜨지 못한채 집으로 돌아왔다. 절망에 잠겨 뒤척거리는 정봉운의 귀전에 태여난지 8달된 아들 진명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잇달아 들려오는 안해의 흐느낌소리…

이제 몇달후면 진명이의 돌생일이다.

그날을 하루하루 기다리며 돌생일상을 남부럽지 않게 잘 차려주려고 했는데 아버지란 사람이 이렇게 되였으니…

마을사람들 대하기도 마음이 무거웠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진명이의 돌생일날을 어떻게 알았는지 광산사람들이 줄지어 집문턱을 넘어섰다.

《진명아, 활짝 웃어라. 사진 찍자.》하며 사진기를 들고 돌생일상앞에 나서는 일군이며 안해에게 진명이에게 입히라고 색동옷이며 갖가지 색갈고운 옷들을 한아름 안겨주는 광산의 친우들의 귀에 익은 목소리가 정봉운의 가슴속에 전류처럼 흘러들었다.

《제가 뭐라고, 이젠 광산사람도 아닌데…》

그 말에 갱초급당비서의 얼굴에 노기가 가득찼다.

《그래 이젠 남남이라는거지. 하긴 우리가 관심이 덜했어. 덜했단 말이야.》

그날 밤 정봉운은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광산사람들의 성의는 고맙지만 언제까지 그들의 짐이 될수는 없었다.

자기가 곁에 있으면 그들의 속을 썩이고 부담만 될것 같았다.

그로부터 며칠후 고향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집에 와달라는 편지가 왔다. 정봉운은 지체없이 구룡리로 떠났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그를 괴롭힐줄이야.

제대군인당원답게 신심을 가지고 살라고 늘 고무해주던 아버지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정봉운은 가슴이 터져나가는것만 같았다.

홀어머니곁에 병신자식만이 남았으니 아들구실을 못할바엔 살아서 무엇하랴 하는 생각에 더는 자기를 이겨낼수 없었다.

그러는 그를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다.

구룡리당비서 김철이였다.

《봉운이, 임잔 당원이지. 고향사람들이 동무를 지켜보고 있어.》

정봉운은 그러는 그가 자기의 손에 따끈한 그 무엇인가를 쥐여주는것을 느꼈다.

《올감자떡이야. 어서 눈물을 거두고 요기를 해야지.》

왜서인지 정봉운에게는 그 말이 큰 힘이 되였다.

어찌보면 아버지같고 형님같은 사람, 정에 넘친 그 모습을 단 한순간만이라도 볼수 있다면!

그후에도 리당비서와 마을의 전쟁로병들은 정봉운을 찾아와 노래도 불러주고 신문에 실린 새 소식도 들려주었다.

정녕 그것은 삶을 포기하려 했던 한 청춘을 전진하는 대오에 세워주는 따뜻한 손길이였고 낳아준 어머니의 정을 초월하는 후더운 사랑이였다.

정봉운은 그것을 노래하지 않고서는 견딜수가 없었다.

누가 말했던가.

시는 축적된 체험의 폭발이라고.

정봉운의 입가에서 열정의 시구절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였다.

어머니사랑이 내곁에 있어
피로움 나는 몰라라
운명도 희망도 그 품에 있어
내 마음 든든하여라
푸르른 하늘아 내 마음 알아다오
따뜻한 사랑있어 내 희망 꽃피워감을
…

그후 마을로는 이런 말이 파다하게 퍼져나갔다.

—정봉운동무가 시를 썼대요.

빛

그 말을 듣고 제일 기뻐 달려온것은 리당비서였다.

《우리 봉운이가 시를 썼단 말이지. 장해, 장하단 말이야.》

《리당비서동지, 이런것도 시라고 합니까? 그저 생각되는것을 그대로 터놓았을뿐인데…》

《아니야. 멋있어. 앞으로도 계속 써야 해. 그래야 심장이 식지 않거던.》

정봉운은 그후에도 자기의 생각을 담은 시를 종이에 옮겨놓군 하였다.

그후 정봉운에게 회창군당위원회 일군이 찾아왔다.

우리 군에 보배덩이가 생겼군하며 밤늦도록 자리를 뜨지 못하는 일군에게 정봉운은 어느덧 마음이 끌려 길지 않은 자기의 경력을 다 터놓았다.

보배덩이, 그 일군이 남기고 간 말이 오래도록 정봉운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였다.

영예군인도 공로자도 아닌 내가 보배덩이라니?

정봉운은 그제서야 짐작이 갔다.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열정의 시편들과 함께 시대와 호흡을 같이하는 그 마음을 귀중히 여긴다는것을.

정봉운에게는 보이였다.

원쑤들에게 두눈을 잃고서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쳤던 항일혁명투사처럼 신념으로 보는 길이.

그 길은 사랑과 정에 넘친 시대가 열어준 삶의 길이였다.

생의 불꽃과도 같은 시라는 서정의 무기를 안겨준 정다운 한식솔들과 함께 걷는 길이였다.

그 길우에 나날이 더욱 따사로운 해빛이 비쳐들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정봉운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마음껏 시창작의 나래를 펴라고 회창군 소재지에 새 집을 마련해주었다.

처음에는 단층집을, 또 그다음에는 다층아빠트의 살림집을.

온 마을이 떨쳐나 도배종이를 발라주고 구멍탄도 차곡차곡 쌓아주며 생활의 구석구석 불편이 있을세라 마음썼다.

광산에서는 남편이 섰던 초소에 안해를 세워주었다.

정녕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가.

그러던 어느날 방송을 듣던 정봉운은 격정의 눈물을 쏟고야 말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올린 편지를 보시고 앞날을 축복하는 사랑의 친필을 보내셨다는 소식이 심장을 쳤던것이다. 자기도 따사로운 그 해빛아래 피는 한 떨기 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환성을 지를만큼 기뻤다. 그러나 넘치는 시적흥분을 한껏 터놓으리만큼 준비되지 못한것이 안타까왔다.

이럴 때 수백리길을 달려 그를 찾아온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있었다.

어문학을 전공한 평양에서 사는 어제날의 교육자들이였다.

전명희, 주명숙, 박련희…

광산당위원회의 일군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다고, 이제부터 선생님이 되여주겠다고 하면서 며칠밤을 꼬박 새우며 시창작의 묘리를 깨우쳐주는 그들의 정다운 손길을 느끼며 정봉운은 생각했다.

(피를 나누고 갈이 살아서만 혈육이랴.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키워준 고마운 우리 당을 생이 지는 순간까지 목청껏 노래하리라.)

평양선생님들의 회창에로의 길은 그후에도 계속 이어졌고 마침내 정봉운의 이름으로 된 글작품집이 완성되게 되였던것이다.

✻ ✻

《작품집의 제목이 뭐랬더라.》

고마운 사람들의 보살핌속에 흘러온 삶의 길을 추억속에 더듬으며 광산당위원회에로 향하던 정봉운이 문득 안해에게 이렇게 묻는다.

정봉운이 왜 그것을 모르랴.

하지만 그의 안해 전봄순은 남편이 묻는 뜻을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영원히 당과 함께!

작품집의 제목이자 영원히 꺼지지 않을 신념의 불길이고 따사로운 해빛아래 그가 걷는 참된 삶의 길이였던것이다.

본사기자 박 옥 경

대중체육을 중시하여 거둔 자랑찬 성과

제2차 보건부문체육경기대회에서 종합 1등을 한 평양산원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적으로 누구나 다 운동을 하는 분위기를 세우고 대중체육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의 뜨거운 은정속에 열렸던 제2차 보건부문체육경기대회가 끝난지도 며칠이 지났다. 하지만 그 나날에 꽃펴난 가지가지의 이야기들은 지금도 각지 의료일군들에게 혁명적열정과 랑만을 더해주고있다. 그중에서도 시안의 보건부문체육경기대회에서 종합 1등을 쟁취한 평양산원 의료일군들의 심정은 류다르다.

놀 라 움 을 자아낸 배구경기

지난 4월초만 해도 시안의 의료일군들은 평양산원이 이번 경기대회에서 종합 1등을 하게 되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것은 평양산원의 승산종목이 롱구밖에 더는 없었기때문이였다.

산원의 일부 의료일군들이 신심을 가지고있지 못하던 그때 원장을 비롯한 이곳 일군들은 자신들이 직접 후방사업에 관심을 돌리는 한편 매일과 같이 훈련장에 찾아와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여기에 고무된 선수들은 지칠줄 모르는 정력을 안고 훈련에 박차를 가하였다.

결과 다른 종목들도 그러하였지만 배구선수들의 기술은 날이 감에 따라 높아졌다. 이번 경기대회에 참가한 평양산원의 남자배구팀과 녀자배구팀이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고 각각 준결승, 결승경기에까지 진출하여 상대팀과 승부를 겨루는것을 보며 시안의 의료일군들은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남, 녀배구팀이 짧은 기간에 높은 기술을 소유하고 평양산원이 종합 1등을 쟁취하는데 기여할수 있은 비결에 대해 묻자 부원장 현홍식동무는 말하였다.

그것은 언제나 신심드높이 대중체육을 앞장에서 이끌어온 산원일군들의 헌신적노력이 있었기때문이라고.

종목의 특성을 잘 살려

이번 경기대회개막후 앞서거니뒤서거니하면서 다른 단위들과 치렬한 경쟁을 벌리던 평양산원 의료일군들은 치료예방과의사 체경일동무를 감독으로 하는 남자롱구팀과 녀자롱구팀이 순위권에 입선하면서부터 종합우승에 대한 신심이 더 커졌다.

하지만 아직은 장담하기 일렀다. 그것은 일부 세부종목들의 경기를 다 치르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때문이였다.

산원일군들은 바줄당기기경기에서의 우승을 위해 팀을 구성함에 있어서 산과, 부인과, 약무부문 등 각 부문에서 선수들을 골고루 선발하는것을 기본원칙으로 내세웠다.

이것은 지휘자와 선수들, 응원자들이 마음을 하나로 합쳐야만 이길수 있는 바줄당기기종목의 특성을 잘 살리게 하는 좋은 방법이였다.

많은 응원자들이 자기 부문의 의료일군들이 팀의 선수로 선발되여 경기장에 나설 때마다 열성껏 응원하였으며 그것은 그대로 온 집단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놀았다.

특색있게 구성된 평양산원의 바줄당기기팀은 4월초에 시작한 예선경기에서부터 집단의 단결력을 시위하며 상대팀들을 이기군 하였으며 지난 5월 1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된 결승경기에서 부원장 박주명동무의 지휘밑에 또다시 이겨 단위가 종합우승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달라진 모습들

출근길에 평양산원방향으로 달리는 로선뻐스에 오르면 류달리 시선을 끄는 사람들이 있다. 평양산원의 의료일군들과 종업원들이다.

기쁨속에, 웃음속에 경기대회의 나날에 대한 추억을 즐겨 펼치군 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생각하였다. 출근길에 피여난 저 웃음꽃들은 그대로 일터에로 이어져 환자들의 얼굴마다에 삶의 희열이 보다 넘쳐흐르게 할것이라고.

자랑은 그것만이 아니다.

산원의 어느 부문, 어느 과에 들려도 결의와 실천에 있어서 이전과는 또 다르게 더욱 신심에 넘쳐있는 의료일군들의 모습을 엿볼수 있다.

《우리야 평양산원 의료일군들이 아닙니까.》

이런 목소리와 더불어 그 누구에게서나 읽을수 있는것은 무엇을 하나 해도 전국의 앞장에서서 통이 크게 설계하고 실천해갈 념원으로 가슴 불태우는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유선종양연구소 소장 리청원동무는 이번 경기대회가 끝난후 평양산원 의료일군들의 포부와 리상은 더욱 높아졌다고 하면서 다음번 대회에서도 우승은 문제없을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하였다.

제2차 보건부문체육경기대회에서 종합 1등을 한 평양산원 의료집단에 대한 취재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킬데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하여 다시금 절감하였다.

본사기자 방 경 찬

체육과학발전에 이바지할 불타는 열의

제2차 전국교육부문 체육과학기술연구성과전시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인들이 세계적인 패권자가 될 높은 목표를 가지고 훈련을 강화하도록 하며 체육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체육의 대중화방침을 관철하여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합니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서는 제2차 전국교육부문 체육과학기술연구성과전시회가 진행되였다.

전시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대학, 전문학교들과 고급, 초급중학교, 소학교 등 각지의 수십개 단위에서 출품한 체육과학기술 연구성과들이 전시되였다. 또한 전시회에는 여러 대학체육단들과 성, 중앙기관, 과학연구기관들의 공동연구성과자료들도 전시되여 관심을 모았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많은 연구성과들을 전시하였는데 룡남산체육단의 체육의료연구사 김정진동무가 내놓은 광물질음료는 선수들이 운동과정에 소모하는 수분과 광물질을 신속히 보충할수 있게 하는것으로 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원산사범대학 실장 김경일동무와 학생들인 최봄, 김유철, 김혜경, 길금성동무들이 집체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연구완성한 대학체육단들에서의 년간 체육기술발전계획수행정형을 판정하는 프로그람은 판정시간이 짧고 효과성이 높은것으로 하여 주목을 끌었다.

어느 한 대학과 함흥철도국체육단의 교원, 연구사들이 공동으로 연구완성한 건강식품은 체육인들의 피로회복 등에 좋은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전시회기간 참가자들은 체육기자재, 체육프로그람, 체육식품 등에 대한 연구사업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교환하였다.

이번에 진행된 제2차 전국교육부문 체육과학기술연구성과전시회를 통하여 모든 참가자들과 참관자들은 체육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갈 불같은 열의를 굳게 가다듬었다.

지 혁 철

혈육의 정 함께 하며 아홉해

신의주시 백사동 12인민반에서 사는 유진옥동무

우리는 얼마전 신의주시 천선1동에서 살고있는 특류영예군인 백일건동무가 보낸 편지를 받았다.

오랜 기간 자기 가정을 진심으로 도와주고있는 신의주시 백사동 12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유진옥동무에 대하여 전하는 영예군인의 편지는 읽을수록 감동깊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내세워주고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어야 합니다.》

유진옥동무가 영예군인인 백일건동무를 알게 된것은 9년전이였다.

평안북도인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는 특류영예군인의 모습을 본 그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였다.

(군사임무수행을 위해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내댔던 영예군인의 생활을 잘 돌봐주는것은 공민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그때로부터 그는 영예군인 백일건동무를 친혈육처럼 도와나섰다.

자주 영예군인의 가정을 찾아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없는가를 알아보고 힘껏 도와주기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였다.

국가적명절이나 영예군인의 생일이면 성의껏 마련한 보약과 건강식품들을 가지고 아들, 딸과 함께 백일건동무의 집을 찾군 하였다. 자식들을 어려서부터 조국을 아는 참된 인간, 영예군인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싶은 마음에서였다.

그러한 유진옥동무가 어느날 퇴근길에 영예군인의 집에 들렸을 때였다. 뜻밖에 영예군인이 몹시 앓고있었다. 그는 그달음으로 길을 떠났다.

영예군인의 치료와 건강회복에 좋다는 약재들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심장질병에 좋은 찔광이를 비롯한 약재들을 마련하여가지고온 그는 호담당의사들과 함께 특류영예군인이 병을 털고일어나도록 정성을 다하였다.

그후에도 그는 탉곰이며 토끼곰을 성의껏 만들어가지고 영예군인의 집을 찾군 하였다.

때로 군사복무를 하는 백일건동무의 아들에게 아버지처럼 군사복무의 나날을 값있게 빛내여야 한다는 편지도 보내고 영예군인의 살림집보수가 제기되였을 때에는 세멘트와 모래, 타일도 해결하여주었다.

지난 2월 특류영예군인이 생일 60돐을 맞을 때에는 팔을 걷어붙이고 생일상도 성의껏 차려주며 군사복무의 나날처럼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진정을 다 바쳤다.

그러한 유진옥동무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들 오진성, 딸 오윤정이였기에 그들도 영예군인의 가정을 돕는 일이라면 어머니의 일손을 적극 도와나서군 하였다.

오늘도 유진옥동무는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영예군인의 가정을 진심으로 돕고있다.

특파기자

여러 아시아나라들의 력사문화유적들

조선민요와 그 특성

중국의 가장 큰 옛 궁전—베이징고궁

베이징고궁은 중국의 명나라와 청나라시기에 리용된 궁전건축유적이다.

연자색담장을 두른 구역이라는 뜻에서 《자금성》이라고도 하였다.

현재는 력사박물관으로 리용되고있는데 고궁박물관으로 불리우고있다.

고궁박물관을 이루는 목조건물들은 청나라시기에 개건된것이라고 한다.

베이징고궁의 총면적은 약 72만㎡이며 남북으로 그은 선을 중심으로 하여 60개이상의 건축물들이 좌우대칭으로 세워져있다.

궁안에 있는 각종 건축물들은 그 위치선택과 부지의 크기, 건물의 칸수와 지붕의 형식, 층수 등과 건물의 채색, 조각장식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봉건유교도덕과 관련한 내용으로 일관되였다.

베이징고궁은 중국의 목조건축술 등을 집대성한것으로 하여 주요한 건축유산으로 되고있으며 많은 력사유적유물들이 있는것으로 하여 널리 알려져있다.

인다스문화의 대표—모헨죠 다로유적

인다스강류역에 위치하고있는 모헨죠 다로유적은 세계5대문화의 하나인 인다스문화를 대표하는 고대도시유적이다.

도시유적은 모헨죠 다로(《죽음의 언덕》이라는 뜻)우에 약 1.6㎢의 면적을 차지하고있다.

도시는 서쪽에 성새, 동쪽에 시가지로 갈라서 건설되였는데 목욕탕, 알곡창고, 집회장 등 규모가 비교적 큰 건물유적들도 있다.

유적에서 특징적인것은 배수시설이 잘 갖추어진것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도로에 의해 기하학적으로 정연하게 구분되였다. 이것은 도시설계가 매우 계획적이였음을 보여준다.

발견된 유물들속에는 보석이나 금속으로 만든 장식품들과 수많은 공예품들이 있다.

이 도시유적을 보고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수천년전에도 현대도시와 맞먹는 광대한 도시가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시하고있다.

캄보쟈의 상징—앙 코 르 와 트

캄보쟈에는 동방의 기적의 하나로 불리우는 유명한 유적인 앙코르유적이 있다.

앙코르와트는 앙코르유적에서 가장 큰 사원이며 그 전경이 아름다와 크메르건축의 최고걸작으로 일러온다.

12세기에 수십년에 걸쳐 건설된 앙코르와트는 처음에는 힌두교사원이였는데 후에 불교사원으로 되였다.

큰돌들을 쌓아서 만든 이 사원은 세개의 단으로 피라미드모양을 이루고있다.

매 단에는 회랑이 있고 거기에 정교한 불상들과 다양한 부각장식들이 배치되여있다.

사원은 회랑들로 구성되여 건물전체가 하나의 큰 방공간을 이루고있는것처럼 보인다.

회랑에는 신화를 주제로 하는 수많은 장식조각들이 있으며 사당에는 수많은 녀신이 부각되여있다.

캄보쟈인민들은 앙코르유적 가운데서도 특히 이 앙코르와트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고있으며 나라를 상징하는 대상으로 내세우고있다.

본사기자

조선민요와 그 특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통적인 민족음악에서 기본은 민요이다.》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는 자기의 고유한 민요가 있다. 민요는 해당 나라 민족음악발전의 유구성과 우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측면의 하나로 된다.

민요는 민족음악의 우수한 특징을 집중적으로 가지고있다.

지난날에는 작가, 작곡가가 따로 없이 오랜 력사적시기를 거쳐 인민대중속에서 널리 불리워오면서 다듬어지고 완성된 노래만을 민요라고 하였다.

그러나 음악창작가들에 의하여 창작된 노래도 민족적선률의 특성이 뚜렷하고 민족적정서가 잘 안겨오며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게 되면 민요라고 할수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의 사랑을 받고있는 민요풍의 노래들은 다 우리 시대의 새로운 민요들이다.

《먼저 찾아요》, 《대홍단삼천리》, 《녕변의 비단처녀》, 《바다 만풍가》와 같은 민요풍의 노래들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행복의 락원으로 전변된 조국의 벅찬 현실과 우리 인민의 다양한 생활감정들을 풍부하면서도 세련된 민족적선률에 담아 노래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기쁨과 랑만을 더해주고있다.

우리 민요에는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진 《양산도》, 《롱강기나리》, 《물레타령》과 같은 구전민요들도 있고 음악창작가들에 의하여 창작된 《노들강변》, 《금강산타령》을 비롯한 신민요들도 있다.

조선민요는 그 선률이 부드럽고 유순한것이 특징이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맑고 우아하며 은근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음악을 즐겨왔으며 선률도 유순하고 아름다운것을 좋아하였다.

이것은 음악에 대한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의 발현이다.

조선민요는 조식과 장단, 선률, 음조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의 음악과 뚜렷이 구별되며 민족적흥취와 멋을 돋구어주는데서 큰 작용을 한다.

민요를 비롯한 민족음악을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와 현대적 미감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갈 때 민족음악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할수 있으며 그 우수성을 더욱 높이 떨칠수 있다.

평양음악학원 작곡학부
황 승 철

부 정 교 합 과 그 치 료 대 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이발이 든든하지 못하면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하여 소화기질병에 걸릴수 있으며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 사람들의 이발을 지지해주는 턱의 크기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 원인은 주요하게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다. 료리가공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씹기에 편리한 음식물이 만들어짐에 따라 입안에서의 음식물의 머무름시간이 줄어들게 되였으며 결과 턱의 크기가 현저히 작아졌다.

이로부터 이발이 나올 자리가 지난 시기에 비해 적어지거나 없어져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앞이부위에서 송곳이가 볼품없이 삐여져나오고 세번째 큰 어금이는 나올 때 주위염증을 일으키거나 턱뼈속에 묻혀 나오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발들의 맞물림새가 형태학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비정상적인 이러한 부정교합환자들은 오늘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부정교합을 제때에 치료하지 않으면 미용학적으로 보기 싫을뿐아니라 이삭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구강질환에 쉽게 걸릴수 있다. 그리고 음식물을 씹을 때 중요한 작용을 하는 측두하악관절장애와 발음장애는 물론 소화기질병도 초래할수 있다.

부정교합에 대한 치료는 턱부정치료와 이발부정치료로 나눈다.

우아래턱이 비정상적으로 맞물려진 턱부정에 대한 치료는 6살이후시기부터 하는것이 적합하다. 그렇지 않으면 외과적인 수술방법과 함께 교정치료방법을 배합해야 원만히 치료할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반드시 전문의료일군들을 찾아가 정상적인 검진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잘못된 이발위치 등에 대한 교정을 바로하기 위한 이발부정치료는 영구이발이 다 나오는 11~12살시기에 하는것이 좋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문수지구에 훌륭히 일떠선 류경구강병원에서는 그 어떤 형태의 부정교합도 세계적수준에서 원만히 치료할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갖추어놓고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를 적극적으로 벌리고있다.

류경구강병원 과장
배 재 선

원군길을 끝까지 걸어갈 맹세안고

얼마전 뜻깊은 건군절을 맞으며 만수대언덕으로 오르는 10여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어느한 대상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에게 원호물자를 마련해가지고온 평성시 중덕동 김명희동무와 10여명의 원군미풍열성자들이였다.

꽃다발을 정히 안고 한층한층 만수대언덕의 층계를 오르는 이들의 가슴속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함께 흘러온 원군의 나날에 있은 소중한 추억이 다시금 되새겨졌다.

원군길을 함께 걷는 이들속에는 부부간도 있고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도 있으며 자매간도 있다.

보람찬 원군길에서 이들중 9명은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한명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감사를 받아안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였다. 하기에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원군미풍열성자들은 마음속으로 불같은 맹세를 굳게 다졌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며 한생 변함없이 원군길을 걸고 또 걸겠습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전성남

대결흉심을 가리우기 위한 유치한 놀음

올해에 들어와 모처럼 개선의 첫걸음을 뗐던 북남관계는 피뢰호전광들이 미국과 야합하여 수개월간이나 벌려놓은 북침전쟁광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여지없이 좌절되고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뢰집권자는 파렴치하게도 그 무슨 《민간교류》와 《협력》에 대해 떠들어대고있다.

얼마전에도 박근혜는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대통령 오바마와 반공화국모의판을 벌려놓고 《드레즈덴선언》을 《원칙을 가지고 추진할것》이라고 떠들어댔다. 북남관계가 파국에로 줄달음치고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결국 박근혜가 운운하는 《민간교류》와 《협력》이란 북남관계파국을 몰아온 대결정책을 정당화하고 내외여론을 기만하여 동족대결책동을 더한층 강화해보려는 음흉한 기도의 산물일뿐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박근혜에게 북남관계를 전면차단하면서 《민간교류》니, 《협력》이니 하는것이 자가당착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책임적으로 대답할것을 요구한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정책파 《5.24조치》는 북남관계를 폐쇄상태에 몰아넣은 근본요인이다.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는 서로의 불신과 오해를 풀고 관계개선을 도모하며 끊어진 민족의 뉴대를 잇고 단합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북과 남이 서로 신뢰하며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면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적극 실현해야 한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북과 남은 모든 분야에 걸쳐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반세기이상 쌓였던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가시고 리해와 신뢰를 두터이하였으며 민족분렬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사변적 성과들을 련이어 이룩하였다.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강화, 북남관계발전은 조선반도에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를 마련하고 온 겨레의 가슴속에 자주통일의 밝은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6.15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여오던 북남사이의 민간교류와 협력사업은 리명박역도가 집권하면서 하루아침에 중단되였다. 동족에 대한 극단적인 적대감과 대결관념이 골수에 꽉 들어차있는 역도는 《북의 핵개발포기》를 《남북협력의 전제조건》으로, 《남북관계해결의 준칙》으로 삼을것이라고 떠들어대면서 《비핵, 개방, 3 000》을 보수당국의 《대북정책》으로 공식화하였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북과 남이 6.15이후 이룩해놓은 모든것을 뒤집어엎고 북남관계를 이전의 대결시대에로 되돌려세우겠다는 공공연한 선언이였다.

역도는 이 범죄적인 《대북정책》을 전면에 내걸고 북남관계를 체계적으로 파탄시키였다. 판광객사건을 구실로 《6.15의 옥동자》로 불리우며 내외의 관심속에 지속되여온 금강산관광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피뢰패당은 그 무슨 《3대조건》을 운운하며 판광재개를 한사코 반대하였다. 북남관계파피에 피눈이 된 리명박패당은 모략적인 《천안》호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구실로 《5.24조치》라는것을 꾸며내여 간신히 이어져오던 북남민간단체들사이의 교류와 협력마저 차단하였다. 이로 하여 북남관계는 완전폐쇄상태에 빠지고말았다.

피뢰집권자가 《5.24조치》를 그대로 두고 북남관계를 전면차단하면서 《민간교류》니, 《협력》이니 하는것은 자가당착이다.

북남관계가 개선되자면 마땅히 리명박패당이 남긴 북남대결의 더러운 찌꺼기들을 말끔히 걷어내고 화해와 단합,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 피뢰집권세력은 《5.24조치》의 해제와 관련하여 터무니없이 그 누구의 《사과와 책임자처벌》따위를 운운했는가 하면 《책임있는 조치》니 뭐니 하고 고아대면서 그의 철폐를 거부하고 북남협력의 문을 더욱 꽁꽁 닫아맸다. 박근혜자체가 《북의 진정성있는 태도변화》가 없이는 어떤 북남협력사업도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립장을 고집하고 있다. 피뢰집권자부터가 북남협력과 교류를 달가와하지 않으니 그 아래것들도 북남관계차단에 열을 올릴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간교류를 한다면 마땅히 중단된것부터 원상복구하는것이 순리이다. 북남교류와 협력에 빗장을 질러놓은채 《민간급의 순수한 교류》니, 《협력》이니 하는것은 모순도 이만저만한 모순이 아니다. 결국 박근혜가 떠드는 《교류》와 《협력》이란 저들의 대결적흉심을 가리우기 위한 위장간판이며 북남관계파국의 책임을 모면하고 극도의 통치위기에서 헤여나기 위한 유치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북남관계를 전면차단, 질식시켜놓고 《공동번영》이니, 《동질성회복》이니 하고 아무리 외워대야 곧이들을 사람은 없다.

지난 3월 남조선의 현대경제연구원이 통일, 외교, 안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결과를 진행한데 의하면 응답자의 46.6%가 북남사이의 신뢰회복을 위한 최우선과제로 《5.24조치해제》를 꼽았다. 《5.24조치》를 그대로 두고 《교류》와 《협력》을 아무리 운운해도 거기에서는 대결의 독기밖에 풍기지 않는다.

피뢰패당이 북남관계의 파국을 몰아온 《5.24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자기가 리명박역도와 다를바 없는 대결미치광이라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놓는것으로 된다. 박근혜는 북남관계를 전면차단하면서 《민간교류》니, 《협력》이니 하는것이 자가당착이 아닌가라는 우리의 질문에 명백히 대답하여야 한다.

심 철 영

불법당선을 확증해준 선거부정사건

얼마전 피뢰정보원패들이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방부직속 싸이버사령부 심리전단요원들에게 거액의 정보활동비를 넘겨주어 박근혜를 추어올리고 야당후보를 깎아내리는 유치한 모략글들을 대대적으로 류포시키게 한 사실이 폭로되였다. 원래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에 그 룬곽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이다. 이번에 폭로된 사실은 그 구체적내막이다. 그에 의하면 싸이버사령부는 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지원예산으로 100여명에 달하는 심리전단요원들에게 관등급과 직책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의 정보활동비를 지불하면서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모략놀음을 벌리였다. 선거직전에 피뢰군싸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요원수가 두배이상으로 대폭 증가되고 매 성원들에게 《작전용》명목으로 인터네트에 접속할수 있는 손전화기가 공급된것 등은 모두 정보원의 예산지원결과였다고 한다.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모략놀음에 골몰한 대가로 당시 피뢰군싸이버사령관이였던자는 박근혜의 집권후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임명되였고 술한 요원들이 표창내신되였다.

지난해 이 사건이 처음 드러났을 때 피뢰패당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형식상의 수사놀음을 벌려놓은 끝에 몇몇 요원들의 개인적소행으로 둘러치며 어물쩍하려 하였다. 하지만 당시 외신들까지도 지적했듯이 야당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를 찬양하는 수천만건의 여론조작글을 류포시킨것을 개인적소행으로 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번에 드러난 사실은 박근혜일당의 너절한 선거부정행위를 명백히 폭로해주고있다. 이로써 피뢰패당은 또 한번 뒤통수를 얻어맞았고 선거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은것이 없다.》고 우겨대던 박근혜의 코도 납작해졌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현 집권자의 당선이 불법협잡, 모략날조의 결과라는것은 누구도 부정할수 없게 되였다. 가뜩이나 《세월》호침몰사고로 분노한 민심의 파탄이 되여 어쩔바를 몰라하고있던 피뢰패당으로서는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 격이다.

분노한 남조선 각계가 지난 《대통령》선거가 특대형부정선거이며 현 《정권》은 《선거쿠데타정권》이므로 박근혜는 즉시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세월》호의 참사는 부패무능한 박근혜의 불법당선으로 초래된 후파이다.

그런데 사건의 진상이 변명할 여지없이 말짱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반역패당은 여전히 살구멍을 찾으면서 철면피하게 놀아대고있다. 피뢰정보원 원장 남재준은 예산지원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대북심리전협조용》이였으므로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고있다.

지난해 이 사건이 처음 드러났을 때 피뢰군싸이버사령부패들이 일부 예산을 정보원에서 받아도 그것은 《국방비》라고 변명하던것과 신통히도 꼭같은 궤변이다. 한편 청와대는 《세월》호의 여파속에서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하여 넘기고 남재준을 빼돌리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이것은 남조선민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며 박근혜의 불법당선을 한사코 정당화하려는 뻔뻔스러운 망동이다.

남재준역도로 말하면 파쑈모략파 반공화국대결소동의 왕초로서 남조선인민들이 제일 벼르는 대상이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썩어도 준치라는 격으로 날로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남재준을 계속 옆구리에 끼고 국구 비호두둔하고있다. 《유신》잔당이며 최측근인 남재준을 무너져가는 반역《정권》의 버림목으로 한사코 써먹기 위해서이다. 애당초 사죄라는것은 죽어라고 싫어하는 박근혜가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조작의 장본인인 남재준역도대신 제가 나서서 《사죄》하는 놀음을 벌린것도 바로 그때문이였다. 이번에도 박근혜는 려객선침몰사고의 뒤수습을 빗대며 남재준을 또 어물쩍하려 하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다. 피뢰패당이 려객선침몰로 인한 초상집분위기를 리용하여 남재준도 살리고 선거부정사건도 흐지부지해버리려 하지만 분노한 남조선의 민심이 그것을 용납치 않는다. 남조선인민들은 불법으로 《정권》을 탈취하고 반역적악정으로 최악의 려객선침몰참사를 빚어낸 범죄자들을 절대로 가만놔두지 않을것이다.

허 영 민

무인기사건은 《천안》호사건의 재현

재미동포전국련합회 대변인이 주장

재미동포전국련합회 대변인이 4월 19일 론평을 발표하여 피뢰패당이 조작한 무인기사건의 대결적정체를 폭로하였다.

론평은 박근혜가 무인기사건이라는것을 만들어내여 《천안》호사건과 같이 동족대결에 리용하려 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남조선당국이 북의 공동조사제의를 거부하고 《북의 소행》설을 고집하는 조사결과라는것을 내놓았으며 《1번》글씨와 같은 전혀 납득할수 없는 증거라는것을 제시했다는데서도 두 사건은 같다고 하면서 론평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무인기사건과 《천안》호사건은 초기 발표로부터 수사형태, 조작된 증거제시, 사건이후 취한 조치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형태이다. 박근혜《정부》는 조작《정부》이다.

또한 국민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게 하는 무능력하고 야비한 《정권》이다.

【조선중앙통신】

사대와 매국을 일삼는 《정부》가 있는 한 재난과 고통은 가셔질 날이 없다

반인민적악정이 빚어낸 당연한 귀결

남조선 각계의 항의의 목소리

지난 4월 16일 인천항을 출발하여 제주도로 가던 남조선려객선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앞바다에서 침몰하여 학생들을 비롯한 수백명의 승객이 목숨을 잃는 대참사가 빚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가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의 반인민적악정을 폭로규탄하고있다.

사고가 발생하자 《MBC》방송과 《CBS》방송은 남조선에서 수십년전부터 이러한 대형사고가 계속되고있다고 하면서 학부모들과 가족들이 아이들을 살려내라고 울부짖고있다고 보도하였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련대는 특별성명을 발표하여 《세월》호참사를 초래한 장본인은 바로 박근혜이며 《정부》가 아이들을 죽였다고 하면서 당국이 애초에 사람들을 살려내는데는 관심이 없었으며 살인마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는 《대통령이 문제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하여 문제의 장본인은 《대통령》인데 반성과 사과는 없고 공직자들에 대한 엄벌타령만 하고있다고 하면서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다른데로 유도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것은 독재자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까밝혔다.

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는 미국신문 《월 스트리트 져널》이 《세월》호침몰사고의 책임을 선장과 선원탓으로만 몰아댄 박근혜의 말이 옳은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데 대해 전하였다.

인터네트신문 《민족일보》는 《박근혜정권의 총체적인 위기》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금 《세월》호침몰사고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권》의 무능이 폭로되고 그가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있다고 썼으며 신문 《로동과 세계》는 민주로총이 피뢰당국의 무능을 규탄하며 분노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투쟁에 나설것을 선언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각계층 군중 5만여명이 15개시, 도에서 반《정부》투쟁을 벌린 소식을 전하면서 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는 투쟁참가자들이 《세월》호참사에 대해 박근혜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의 퇴진을 요구하여 투쟁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고 전하였다.

비극적인 《세월》호침몰사고로 최악의 곤경에 처한 박근혜가 위기에서 헤여나기 위해 모지름을 쓰고있다.

박근혜는 며칠전 재정전략회의라는것을 열고 각 부처에 안전관련예산과 업무를 《철저히 재검토》하라느니, 재난발생시 《재정지원방법에 대한 세부안》을 만들라느니 하면서 복닥소동을 피웠다.

또한 청와대에 종교관계인사들을 초청해놓고 《세월》호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안전한 사회》를 위한 재난대응체제를 만들겠다고 흰소리를 쳤다. 그러나 소잃고 외양간고치기식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망동에 속아넘어갈 사람은 없다.

《세월》호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얼마전 그가 연출한 조문연극은 이번과 같은 대참사가 왜 일어났겠는가 하는것을 충분히 생각할수 있게 한다.

지난 4월 29일 오전 박근혜는 《세월》호참사합동분향소를 찾아갔다. 주민들의 뭇매를 맞을가봐 두려워 일반사람들의 조문이 시작되지 않은 아침일찍 합동분향소에 나타난 박근혜는 홀로 조문을 했는데 한 로파가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조문을 마친 박근혜가 그 로파의 손을 잡고 위로하는 놀음을 벌렸다고 한다.

얼핏 보면 《대통령》이 피해자유가족을 《진심으로 위로》하는듯 한 장면이였다. 이것이 남조선언론들에 굉장히 보도되였다.

그런데 막상 알고보니 그 로파는 피해자유가족이 아니였다. 그는 청와대가 사전에 준비한 인물로서 박근혜의 뒤를 따라가 만나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한다. 이것이 폭로되자 남조선각계에서는 《유가족위로장면연출》이라는 비난여론까지 일었다.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린 청와대측이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민심의 분노는 더욱 거세여지고 결국 이 사건은 붙는 불에 키질을 하는 격이 되였다.

피뢰집권자의 유치한 놀음을 비난단죄하는 목소리들이 도처에서 울려나오고 인터네트에도 야유조소의 글들이 차고넘쳤다.

남조선신문 《한겨레》는 《민심과 따로 노는 청와대》라는 제목의 글에서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피뢰당국의 안이한 처사와 어처구니없는 망동에 대해 이렇게 성토하였다.

《청와대가 〈세월〉호침몰로 얼어붙은 민심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있다. 청와대의 책임을 론하는 보도가 나오자 〈소송〉을 운운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대통령〉을 비판한 피해자유가족들에게 불만을 표시하며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만천하에 드러난 〈정부〉의 총체적무능에 대해 스스로 돌이켜보고 엎드려 사죄해도 모자랄 판인데 아직도 성난 민심과 사태의 엄중함을 파악하지 못하고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그럴수록 청와대는 민심과 멀어지는 섬으로 고립될것이다. 그것은 박근혜에게도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이다.》

언론들뿐이 아니다.

새정치민주련합은 《세월》호침몰사고와 관련하여 《국회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침몰사고와 관련한 박근혜와 청와대의 처사가 얼마나 억이 막히고 유치했으면 그동안 《선 수습, 후 문책》론을 운운하던 《새누리당》내부에서까지 비난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겠는가.

며칠전 이 당의 한 의원은 박근혜가 《세월》호침몰사고를 통해 드러난 공무원들의 잘못을 거론하며 자체개혁을 주문한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공무원이 개혁의 대상인데 어떻게 자체개혁을 하는가고 반문하였다.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것을 눈치챈 《새누리당》의 다른 의원들도 《대통령》이 《세월》호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유가족들과 민중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였다.

반인민적악정으로 특대형사고를 빚어내고도 성근히 사죄하고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날 대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오그랑수를 쓰고 책임을 전부 남에게만 넘겨씌우면서 뻔뻔스럽게 놀아대는 박근혜패당의 망동은 그야말로 희생자들에게 두벌죽음을 주는 반인륜적악행으로서 절대로 묵과할수 없다. 피뢰집권자의 지지률이 지금 곤잡을수 없는 속도로 떨어지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본사기자 리 효 진

두벌죽음을 주는 악행

만천하에 드러난 〈정부〉의 총체적무능에 대해 스스로 돌이켜보고 엎드려 사죄해도 모자랄 판인데 아직도 성난 민심과 사태의 엄중함을 파악하지 못하고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그럴수록 청와대는 민심과 멀어지는 섬으로 고립될것이다. 그것은 박근혜에게도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이다.》

언론들뿐이 아니다.

새정치민주련합은 《세월》호침몰사고와 관련하여 《국회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침몰사고와 관련한 박근혜와 청와대의 처사가 얼마나 억이 막히고 유치했으면 그동안 《선 수습, 후 문책》론을 운운하던 《새누리당》내부에서까지 비난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겠는가.

며칠전 이 당의 한 의원은 박근혜가 《세월》호침몰사고를 통해 드러난 공무원들의 잘못을 거론하며 자체개혁을 주문한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공무원이 개혁의 대상인데 어떻게 자체개혁을 하는가고 반문하였다.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것을 눈치챈 《새누리당》의 다른 의원들도 《대통령》이 《세월》호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유가족들과 민중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였다.

반인민적악정으로 특대형사고를 빚어내고도 성근히 사죄하고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날 대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오그랑수를 쓰고 책임을 전부 남에게만 넘겨씌우면서 뻔뻔스럽게 놀아대는 박근혜패당의 망동은 그야말로 희생자들에게 두벌죽음을 주는 반인륜적악행으로서 절대로 묵과할수 없다. 피뢰집권자의 지지률이 지금 곤잡을수 없는 속도로 떨어지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본사기자 리 효 진

《급격히 침몰하고있는 박근혜시대》

중국의 인터네트신문에 실린 글

중국의 인터네트신문 《1코리안뉴스》가 2일 《〈세월〉호침몰과 함께 사라진 중범죄들》이라는 제목으로 남조선피뢰정권의 부패성을 폭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얼마전 남조선에서 안산합동분향소를 찾은 박근혜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많은 사람들이 그와 리명박이 보내온 화환을 밖으로 내동댕이친데 대하여 전하면서 이것은 화환조차 조객들의 환영을 받지 못한채 버려져야 하는 전직, 현직집권자들의 불행한 모습이라고 조소하였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되는 경우 그것은 최악의 사대망국시대가 될것이라고 하던 인민들의 걱정이 현실로 되였다고 하면서 신문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오늘 남조선사람들은 누구나 악몽속에 산다. 그 악몽은 《세월》호참사로 하여 더욱 끔찍한 현실로 되였다. 그 누구도 심지어 나어린 학생들마저도 피해갈수 없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재난이 끝없이 몰아닥치고있는것이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최악의 사대망국시대 《리명박근혜》호는 급격히 침몰하고있다. 력사에 기록될 《세월》호참사와 함께 수장되고있다.

그 무엇으로써도 변명할수 없는 재난과 인명피해, 권력과 황금만능주의가 뒤엉켜 나어린 생명들을 무참히 앗아간 용서받을수 없는 범죄앞에 사람들은 질문한다. 급격히 침몰하고있는 박근혜시대를 도대체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가?

《암흑시대》, 이것이 기만과 허위, 부정부패가 한몸뚱아리가 되여 모든것을 무참히 파괴하는 박근혜《정권》을 가리켜 통곡하며 가슴을 치는 모든 사람들의 웨침이다.

또한 《세월》호참사 《덕》에 간첩조작사건으로 궁지에 몰렸던 정보원 원장 남재준이 또다시 살아남은것이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때 불법선거개입사건으로 칼도마우에 올랐던 정보원, 검찰, 경찰이 이런저런 대형사건들이 터지면서 도마뱀꼬리자르기식으로 끝없이 살아남고있다.

칠흑같은 어둠이 남조선의 하늘을 뒤덮고있다. 숨쉬기조차 어려운 순간들이 계속된다.

【조선중앙통신】

단 평 봉변당한 살인마

얼마전 박근혜가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진도군에 다시 나타나 피해자가족들을 《위로》하는 광대극을 또 벌려놓았다. 거기서 그는 자기도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어보아 안다.》느니, 《가슴이 미여진다.》느니 하며 실종자가족들의 간을 녹여보려고 갖은 노죽을 다 부리였다. 그런데 이때 청중속에서 잔말 말고 사죄나 똑똑히 하고 온전한 수습대책이나 내놓으라는 항의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메사해진 박근혜는 낯짝이 홍당무가 되여 쩔쩔매다가 꽁무니를 사리고말았다. 얼마전 길가던 로파를 피해자가족으로 가장시켜 《위로》하는 연극을 논것이 들장나 개코망신을 한 박근혜가 그 봉창을 하려고 작심하고 벌린노릇인데 오히려 랭대와 면박만 당하였다. 하지만 박근혜는 누구를 탓할것도 없다. 피해자가족들이 청와대에 밀려갔을때 만나주기는커녕 경찰들을 내몰아 문밖에서 쫓아버린것이 누구인가. 도처에서 어린 자식들을 잃은 원한의 곡성이 터져나오고 온 남조선이 초상집인데 대양건너 멀리에서 상전인 오바마를 끌어들여 요란한 잔치판을 벌려놓고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색다른 옷을 갈아입으며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아양을 떤것도 박근혜가 아닌가.

치마밑에 키운 자식 하나 없고 배운것이란 너절한 정치창녀노릇뿐이니 그럴수밖에 없다.

한쪽에서는 자식들의 시체라도 내놓으라고 야단인데 사죄는 고사하고 그 처참한 광경앞에서 낯내기광고를 하려 했으니 이게 어디 사람이 할 짓인가. 사실 박근혜로서는 분노한 그들에게서 된매를 맞고 사등뼈가 부러지지 않은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독사는 허울을 벗어도 독사이다.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반인민적악정으로 류례없는 대참사를 빚어낸 박근혜가 이제 와서 노죽을 부리며 살인마의 흉악한 몰골을 가리우려 해도 소용이 없다. 죄는 지은데로 가기마련이다.

박 철 준

《정부》의 무능은 《대통령》의 무능

남조선신문이 주장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4월 23일 《대통령이 문제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박근혜가 려객선 《세월》호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었지만 대책을 세우기 위한 론의대신 일방적지시만 하였을뿐 책임적인 사과나 반성은 일체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회의에서 공직자들에 대한 엄벌을 떠들었는데 기막힌것은 그 대상에서 자기와 청와대만을 례외로 하고있는것이라고 규탄하였다.

문제의 장본인은 《대통령》인데 반성과 사과는 없고 공직자들에 대한 엄벌타령만 한것은 너무나도 잘못된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다른데로 유도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것은 독재자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까밝혔다.

《정부》의 무능은 곧 《대통령》의 무능이라고 하면서 사설은 박근혜는 책임을 피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로씨야에서 전승절 경축

로씨야에서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69돐을 경축하였다.

울라지미르 뿌찐대통령이 8일 련방평의회 의원들과 국가회의 대의원들, 정부성원들, 전쟁로병들과 함께 모스크바의 크레믈리성벽결에 있는 무명전사묘에 화환을 진정하였다.

이날 대통령의 참가밑에 전쟁로병들을 축하하는 연회가 크레믈리에서 있었다.

9일 붉은광장에서는 전승절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뿌찐대통령은 연설에서 쏘련인민의 철의 의지와 용감성, 완강성이 압제로부터 유럽을 구원하였다고 하면서 로씨야는 파시즘과의 투쟁에서 그들이 논 역할에 대한 신성하고 영원불멸한 진리를 언제나 소중히 간직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로병들을 절대로 욕되게 하지 않을것이며 로씨야와 그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수호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로씨야국가가 주악되고 열병행진이 시작되였다.

로씨야국기와 승리의 기발, 군기들을 든 기발종대와 륙해공군 명예위병대 그리고 각 군종, 병종부대들과 군사학교종대들이 광장을 행진하였다. 열병종대들의 뒤를 따라 《또르—M2У》최신형 대공미싸일종합체와 《T-90A》땅크, 《C-400》대공미싸일종합체, 《또뽈—M》전략미싸일종합체 등 150여대의 현대적인 무장장비와 군사기술기재들이 지나갔다. 또한 전투기, 직승기, 급유기, 수송기 등 각종 군용기들이 붉은광장상공을 비행하였다.

전승절을 맞으며 싼크뜨—뻬쩨르부르그, 하바롭스크, 울라지보스또크, 예까쩨린부르그, 노보씨비르스크를 비롯한 나라의 주요도시들에서 군인들의 열병행진, 전쟁로병들과의 상봉모임, 예술공연, 사진전시회 등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이 진행되였다.

이란에서 원유시추

항의시위

뽀르뚜갈의 리스봉에서 1일 근로자들의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5.1절을 맞으며 진행된 시위에는 수천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자들은 당국의 부당한 긴축조치를 배격하고 임금인상과 일자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취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선진국》의 1%와 99%

자본주의의 집권계층과 재벌들, 그의 어용사가들은 항상 저들의 《물질적번영》과 《발전》에 대해 침이 마르도록 읊조리고있다.

숲속의 잡관목들이 생존을 위해 키를 다투듯 초고층건물들이 서로 디딜내기를 하며 배좁게 들어선 거리, 유흥과 리윤추구로 가득찬 광고판들과 유흥의 간판들이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을 사치와 방탕에로 이끌고있다.

마치 향유와 도락이 생활의 전부인듯 텔레비죤화면이나 신문의 지면들은 자본주의의 《부귀영화》를 요란스레 펼쳐보인다.

하지만 그 세계를 감싸고있는 비단보자기를 한겹만 헤쳐보아도 자본주의의 추악성과 반인민성을 낱낱이 가려볼수 있다.

최근 어느 한 기구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일명 선진국이라 일컫는 10여개 나라 사람들의 소득불균형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소득분배와 빈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기구는 지난 1981년부터 2012년까지 30여년간 소득이 제일 높은 1%계층의 소득이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률을 조사하였다. 그에 의하면 비률이 1981년의 6.5%에서 2012년에는 10%로 높아졌다고 한다.

이 수자는 자본주의사회가 누구를 위한 사회인가를 충분히 알수 있게 한다.

특히 소득불균형은 미국이 가장 심하였는데 1%재벌들의 소득이 전체 국민소득의 20%를 차지하였다. 이는 30여년전에 비해 근 2배로 늘어난것이다.

이것은 1%밖에 안되는 부유한자들은 더욱 비대해졌으며 나머지 99%의 사람들은 보다 령락되고 빈곤해졌다는것을 응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결국 절대다수 근로대중은 자본의 노예로 더욱 전락될수밖에 없다.

속담에 부자 하나면 세 동네가 망한다는 말이 있다.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에 꼭 들어맞는 말이라고 할수 있다.

지금 자본주의사회에서는 1%의 부자들때문에 99%의 근로대중이 절망과 도탄에 헤매이고있다.

극도의 개인주의와 황금만능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재벌들의 치부와 착취는 수많은 사람들을 삶의 막바지에로 몰아가고있다.

탐욕과 리윤추구에 환장이 된 극소수의 재벌들은 저 하나의 영달을 위해 피를 물고 날뛰고있다. 결과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파산당하고 무리로 해고당한 사람들이 실업자로 전락되고있다.

일본에서는 2013회계년도에 전국적으로 1만 536개의 기업체가 파산당하였는데 올해 1월에만도 864개의 기업체가 파산당하였다.

미국에서는 지난 4월의 1주일동안에 전국적으로 새로 등록된 실업자수가 30만 4 000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 전주에 비해 2 000명더 늘어난것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돈밖에 모르는 대기업가들은 경영형편의 악화를 구실로 대대적인 일자리축감을 강행하여 로동자들을 무리로 내쫓고있다.

지난해에 세계적으로 실업자가 2억명이 넘었으며 그중 24살미만 청년들의 실업자수는 7 400여만명에 달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근로대중의 비참한 처지를 잘 알수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빈부의 차이가 계속 늘어나는것은 자본주의의 반동적본성으로부터 초래되는 필연적결과이다.

이번에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소득불균형실태를 조사한 기구는 그 원인의 하나를 부자들만을 위하는 자본주의의 반인민적시책에서 찾았다.

기구는 1%부자들의 소득세가 1981년에는 66%였지만 2013년에는 43%로 낮아졌다고 하면서 근로대중에 대한 착취의 수단으로 되는 불공평하고 차별적인 조세제도의 변화가 없으면 빈부격차가 더 벌어질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자본가계급을 위해 복무하는 자본주의사회가 그대로 존재하는 한 근로대중을 위한 그 어떤 시책이란 절대로 있을수 없다.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 집이 없어 한지에서 류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방법은 국소수의 부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는것이다. 그들의 불우한 처지와 비참한 생활은 팔자도 숙명도 아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빈부의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본가계급과 근로대중의 모순과 대립은 더욱 격화될것이며 자본주의의 종말은 앞당겨질것이다.

지난 2011년 미국에서 일어난 반월가시위가 미국전역은 물론 80여개 자본주의나라의 1 500여개 도시에로 급격히 파급되여 자본주의세계에 울린 경종이 있다.

《우리는 99%이다!》, 이는 자본의 착취와 억압에 짓눌리고 신음하는 비관의 절규가 아니라 존엄있고 참된 삶을 위해 떨쳐나선 근로대중의 정의의 웨침, 투쟁의 함성이다.

본사기자 리 철 혁

ㄱ-410738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